

PLENITUDE DEUXIEME **P2** DEEPER AND BEYOND



When Dom Pérignon blesses its Vintage with a second life.

Dom Pérignon

경고: 저산소 음주는 뇌졸중, 기어코심상이나 기타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7 vol.165



# FENDI

FENDI.COM



# CHANEL

FINE JEWELLERY



## COCO CRUSH

RINGS IN DIAMONDS, WHITE AND YELLOW GOLD



MY CHOICE



SEAMASTER AQUA TERRA  
MASTER CHRONOMETER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 Style 조선일보

Issue.165 Novemb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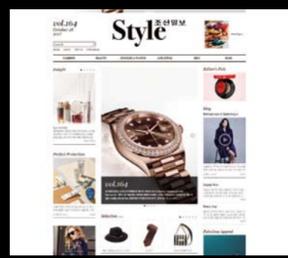
- 14 **COOL & OLD BRITANNIA** 전통과 모던을 둘 다 품고 있고, 균형 감각을 절묘하게 유지해 나가는 영국적인 '역량과 감각이 잡힌' 런던의 개성과 매력은 자구춘을 떠들썩하게 만든 '브레시트 파장' 이후에도 여전하다.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양면의 매력을 지닌 '브리타니아(Britannia)' 방식의 창조성을 살펴본다.
- 16 **COLOR AND SOUL** 소중하고 귀한 컬러 스톤 주얼리가 만들어 낸 드라마틱한 순간.
- 18 **EXTREME ADVENTURE** 끝없는 질주와 모험을 꿈꾸는 남성의 욕망을 품은, 워치메이킹 역사를 장식할 악스트림 워치.
- 20 **CLOSE TO YOU** 스트리트 룩에서 파티 웨어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커플 스타일 다이어리.
- 28 **LOVE THE RENAISSANCE** 이전 과연 꿈일까 현실일까, 최근 몇 시즌째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이끄는 구찌의 2018 크루즈 컬렉션은 다시 한번 보는 이들을 특유의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했다.
- 30 **CASE BY CASE** 단순한 서류 가방을 넘어 여자들이 탐낼 만큼 디자인이 근사한 브리프케이스를 소개한다.
- 31 **A SPIRIT OF MODERNITY** 2018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순간 이동을 한 듯 두 문화가 어우러진 반전 매력을 담았다. (스타일 조선포)가 이 현장에서 하이패션이 펼쳐는 강렬한 드라마를 전한다.
- 32 **RED DIARY** 이번 시즌에 컬러 아이템을 구입한다면 당연 레드다. 패션계를 물들인 레드 컬러백 & 슈즈 컬렉션.
- 33 **POWERMATIC 80 HOURS** 80시간을 쉬지 않고 기록하는 시계. 바로 티쏘의 파워메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한 컬렉션이다.
- 34 **SHOE TIME** 클래식하지만 트렌디한 요소를 더해 어느 룩에나 고급스럽게 어우러질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주력 F/W 남성 뉴 슈즈.
- 35 **SPARKLING MOMENT**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과 함께할 스와르브스카의 스위스 메이저 크리스탈 워치 컬렉션.
- 36 **THE QUINTESSENCE OF BRITISH LUXURY** 브리타니아 럭셔리 상정과도 같은 홀로와 위스키가 만나는 흔치 않은 체험의 장을 소개한다.
- 38 **CHARM THE SKIN** 보물을 보고 손으로 느끼며, 향을 맡고 제품을 비르는 과정 그 자체가 모두 뷰티의 일환이다. 여자에게 화장품이 대 표적인 감성 소비재인 이유다. 향과 제형, 효능까지, 피부를 위한 가장 고급스럽고도 값진 투자를 소개한다.
- 39 **ART OF SENSES** 한 병이 완성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프레스티지 퀴베르만 빛어내는 삼배인의 명가 크루그(Krug).
- 40 **JUST ONE DROP** 가벼운 세럼 타입이지만, 고가 크림 못지않은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춘 에센스가 출시되고 있다.
- 41 **FALL IN LOVE** 울긋불긋 다채로운 컬러가 어우러진 하늘과 산. 그 어느 계절보다 깊고 담대한 색을 지닌 가을을 담은 깊고 풍부한 컬러의 F/W 메이크업 신제품.
- 42 **EDITOR'S PICK** 피부도 웰등 준비가 필요하다. (스타일 조선포) 에디터가 추천하는 겨울철 뷰티 케어 리스트.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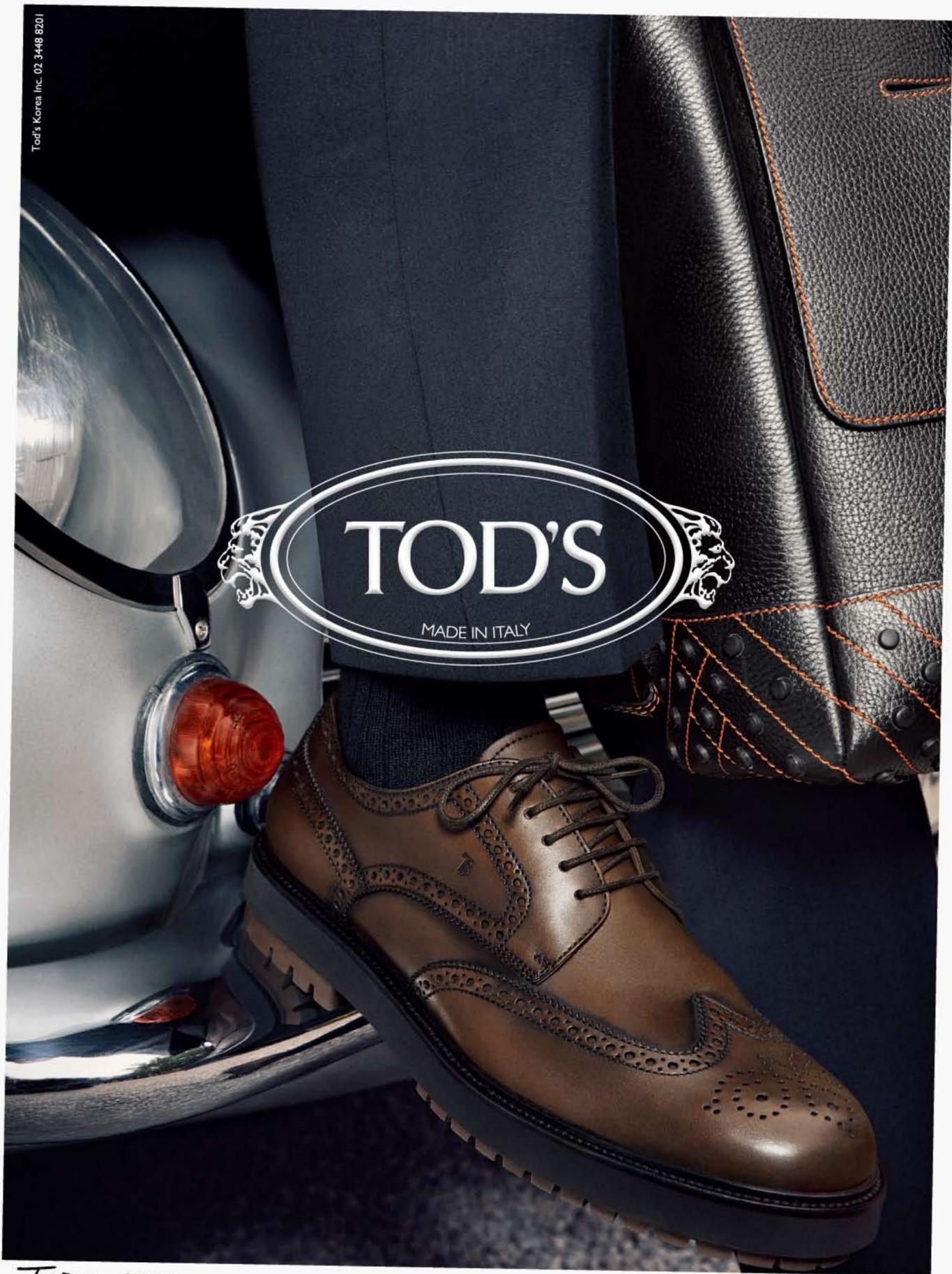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원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포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포)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화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포)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포)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ODS.COM



**Jewel PINK LADY**

영원한 여성의 컬러, 핑크 컬러 주얼리.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2개의 손가락 사이에서 피어난 듯 유년극한 디자인이 특징인 링 1천2백만원대 **쇼메**, 장수와 부를 상징하는 거북이 모티브 네크리스 1천만원대 **부쉬론**, 행운의 부적을 상징하는 핑크 스톤 아틀레트 네크리스 2백만원대 **카르미에**, 키 컬렉션 팬드트 1천3백만원대 **타피니**, 핑크 스톤을 메인으로 클래식하게 세팅한 링 1천3백만원대 **플라미**, 유색석의 매력을 극대화한 심플한 디자인의 링 1천1백만원대 **타피니**, 그린 컬러 에메랄드 스톤으로 눈을 사로잡고 핑크 컬러 유색석을 품은 애플 컬렉션 링 6천만원대 **부쉬론**, 에티어 **베이지**, **이저전**

프로그라메 비전주

**Interview**

Santoni edited by **MARCO ZANINI**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분다삼 패션 위크의 스페셜 디자이너이자 이탈리아 명품 슈즈 브랜드 산토니(Santoni)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르코 자니니(Marco Zanini)가 한국을 찾았다.

Q 분다삼은 여러 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방문한, 한국에서도 이례적인 개념의 편집숍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바라본 분다삼의 첫인상은 어떠한가?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본 분다삼의 웅장한 위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 패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공간이 무척이나 흥미롭네요. 이러한 곳에 저의 첫 번째 산토니 RTW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입니다. Q 클래식한 디자인에 최상의 퀄리티를 갖춘, 이탈리아 럭셔리 슈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산토니, 남성 전문 슈즈 브랜드를 여성화한 아이라 패션 토틸 컬렉션으로 확장하는 데 고심한 부분이 무엇인지. 산토니의 새로운 목표는 전통과 패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맡으며, 산토니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오늘날에 맞는 모던하고 간헐파라리한 룩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 산토니의 파브리카 정교함, 퀄리티는 그대로 지닌 채 조금 더 유년극한 패션 센스를 슈즈 외 패션 아이템에도 접목해, 라인을 확장하는 시도를 한 것이죠. Q 이번 컬렉션 런칭을 위해 디자인의 영감이 된 일러스트를 담은 책을 함께 선보였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화려한 영상이 아닌 '책'을 통해 컬렉션을 소개한 점이 흥미롭다. 그 이유는? 디지털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루트를 선택한 건 바로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시장에서 잠깐 주목받고 소모되는 콘텐츠가 아닌, 오랫동안 남는 지속성에 중점을 둔 것이죠. 분다삼과 같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총망라한 곳에 이 책이 놓인다면, 소비자마다 패션 브랜드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또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요. 이처럼 산토니 컬렉션을 한 시즌이 지나고 끝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닌, 수년이 지나도 옷장 속에 자리 잡는 지속성 있는 브랜드로 각인시키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Q 산토니 에디티드 바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이자 편집자를 맡았다. 편집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산토니 RTW 컬렉션에 영감을 준 이탈리아의 장선과 색감, 에센스를 녹이기 위해선 디자이너로서 패션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만의 시선이 담긴 에디팅이 필요했죠. 이 책에 잘 나가기 패션적인 것만 주인공이 아니고 이탈리아 특유의 미에 대한 감성을 함께 담아내길 원했습니다. 또 이번 컬렉션 자체가 대규모가 아닌, 퀄리티 제1, 보미 제1, 디테일 제1, 핑크 스톤의 클래식 피스만 선보였기에 진행 자체가 규칙이 잘 잡혀 있어야 했죠. 분위기에 맞는 컬렉션 피스를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디자이너의 편집자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디터 **이저전**



프로그라메 비전주



프로그라메 비전주

**Beauty AUTUMN IN LIPS**

아름답게 무르익은 장미 꽃잎이 떨어질 무렵, 가을의 깊고 우아한 컬러를 담은 말린 장미빛 립스틱이 당신의 입술에 스며들 준비를 마쳤다. 2017 F/W 딥 컬러 립스틱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벨파이어의 레드 립을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레드 컬러지만, 깊고 따스한 컬러감을 지녀 우아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나스 에디션 립스틱 루이스**,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완벽한 발색을 선사해 입술 안쪽부터 그려내어 선명해 발라도, 립 라인까지 완벽히 채워 발라도 예쁘다(4, 2g 3인1용). 입술에 살짝만 터치해도 입크처럼 뛰어난 발색력과 유지력을 발휘하는, 자칫빛이 감도는 버건디 컬러의 **나스 안 레이 2017 홀리데이 컬러 컬렉션 키핑**, 유리 막을 씌운 듯 글로시한 반짝임이 돋보이는 한정판 컬러(5, 5ml 3인1용). 사블의 아이코닉한 레드 컬러에 브라운 컬러를 한 방울 섞은 듯 깊고 풍부한 색감의 **시슬리 루주 알쉬르 발렛 N3 브릭 레드**,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레드 컬러로 어떤 피부 톤에도 예쁘게 어울린다(3, 5g 4인1용). 말린 장미 컬러의 정서를 보여주는 **말뚝 입술레 글로스 433 다스티 로즈**,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와 톤 다룬팅 어싱러는 핑크 컬러가 만나 볼록같이 느껴지는 우아한 장미빛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8ml 4인1용). 은은하고 미세한 필름 함유한 따스한 브라운 계열의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말레트로 보네 루주 아 레브르 가젤리아**, 과하지 않은 차분한 컬러로 데일리 립스틱으로 제2의(4g 6인1용). 시아한 필름과 텍스처가 특징인 **시슬리 루주 아 레브르 이드라방 롱그 드워 L24**, 색이하고 관능적인 이브닝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컬러는 버건디 컬러가 매력적이다(3, 4g 5인1용).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가을의 질주를 더욱 경쾌하게 만드는 프리미엄 신차의 향연**

올가을 하이엔드 카 시장은 유난히 흥성했다. 점점 더 경쾌하고, 튼튼해지고, 경쾌해지는 하이엔드 카의 진화는 도무지 멈출 틈이 없는 듯 보인다. 대체로 개성을 내세우며 속속 선보이고 있는 주요 프리미엄 신차를 소개한다. 먼저 빼어난 프레스타지 이미지를 지닌 브랜드 롤스로이스는 8세대 뉴 팬텀(New Phantom)을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전례 없는 비스포크 오소인 더 갤러리(The Gallery)를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 원하는 예술 작품을 자동차 대시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자동차 1백년 역사상 최초로 예술적 요소를 대시보드에 반영한 사례라고, 임종익은 디자인으로 고정 팬층을 가늠린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는 한국의 젊은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도미니크(Dominick)' 론칭을 기념해 한정판 에디션을 내놓았다. 웹진,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이 합쳐진 모바일 사이트인 도미니크 플랫폼에서는 도시 감성을 반영한 MINI 해치 도미니크 에디션 20대와 여유롭고 편안한 감성을 내세운 MINI 클럽맨 도미니크 에디션 30대를 각각 판매한다. 토요타의 경우에는 새로운 TNGA 플랫폼과 2.5L 다이내믹 포스 엔진, 동급 최고 수준의 마력을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적용해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치료 업그레이드된 점을 내세우는 8세대 뉴 캠리(New Camry)가 신차로 나왔다. 역동적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비즈니스와 레저 활동 모두에 적합한 BMW 뉴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0년 선보인 5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의 정점을 계승하면서도 7 시리즈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 어려움도 장점이 많은 모델. BMW는 주행거리가 최대 208km까지 늘리고 번거로운 주행 거슬러까지 적용해 한층 똑똑해진 전기 자동차 BMW i3 94Ah도 내놓았다. 이 밖에 메르세데스-벤츠 모델로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더 뉴 S-클래스가 총 8개 라인업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에디터 **고성현**



**Exhibition 이재이 & 댄 레벤슨 2인전, <나를 바라보는 기억들(Memories Look at Me)>**

다분히 의도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로서 경향을 형성해 부여하는 서사 개념을 탐구하는 2인 작가의 전시가 서울 갤러리 엠(Gallery EM)에서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린다. 서울 출생으로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재이(Laye Rhee), 그리고 미국 출신으로 런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C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작가 댄 레벤슨(Dan Levenson)의 2인전 <나를 바라보는 기억들(Memories Look at Me)>이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서사는 자체적인 논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내레이터에게 다시 말을 건네는 발성이 흥미롭다. 갤러리 큐레이터는 "두 작가의 작업은 화상이나 상상 속 과거에 대한 영감을 표현한다"면서 "그 과거는 이상화된 것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사 자체로는 충실하다"고 설명한다. 예전대 이재이 작가의 사진 시리즈와 2채널 영상 작품인 '완벽한 순간(The Perfect Moment)'을 보면, 한 화면에서는 나이 지긋한 무용수가 있을 수 없는 기억이 된 젊은 시절 경험을 얘기하고, 다른 화면에서는 젊은 무용수가 이를 재현해 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댄 레벤슨 작가의 작품은 가상의 학교인 취리히 미술학교를 무대로 하는데, 오래전 폐기된 학생들의 습격을 나타내는 회화 작품, 보관용 시물함, 의자와 말 드로잉 등으로 얘기를 펼친다. 그의 작업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에 대한 헌신'이라고, 홈페이지 www.galleryem.co.kr 에 더 **고성현**

© Didier Guerdon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모던하고 우아한 램프를 통해 은은한 빛을 발하는 플로어 스탠드 A808 5백88만원 아르텍 by 에이투스.

수납과 디스플레이가 편리한, 간결하면서도 경쾌한 디자인의 사이드 보드 3백만원대 라네로제 by 디모빌리.

여러 가지 패턴을 조합하여 그윽한 디자인을 실현. 3백50만원 로테나 I&C.

책과 문구를 수납할 수 있으며 독서용 램프를 장착한 무빙 체어 부커리스트 6백14만원 무아만 by 짐블랑.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사면의 본래적인 면을 강조하여 넓고 화려한 디자인 279만원인 에르 by 오노베.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리드 조절이 가능하고 송차기축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리운지 체어 LC4 가격 미정 가시나 by 크리에이티브랩.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균형 잡힌 사운드를 실현하여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무선 헤드폰 QC35 52만5천원 보스.

반드라는 캐시미어 소재는 극도로 시원하고 부드럽고, 울과 양모를 본뜬 울의 열을 최상급으로 채워 시원함을 극대화하는 비오셀 50 2백20만원인 영남모텔로스.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트라이보 신문과 잡지 등을 올려두기 좋은 매거진 트레이 3백80만원대 울터날 by 두오모.

실버 링을 쌓아 올린 듯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매력적인 캔들 스틱 1백50만원 크리스토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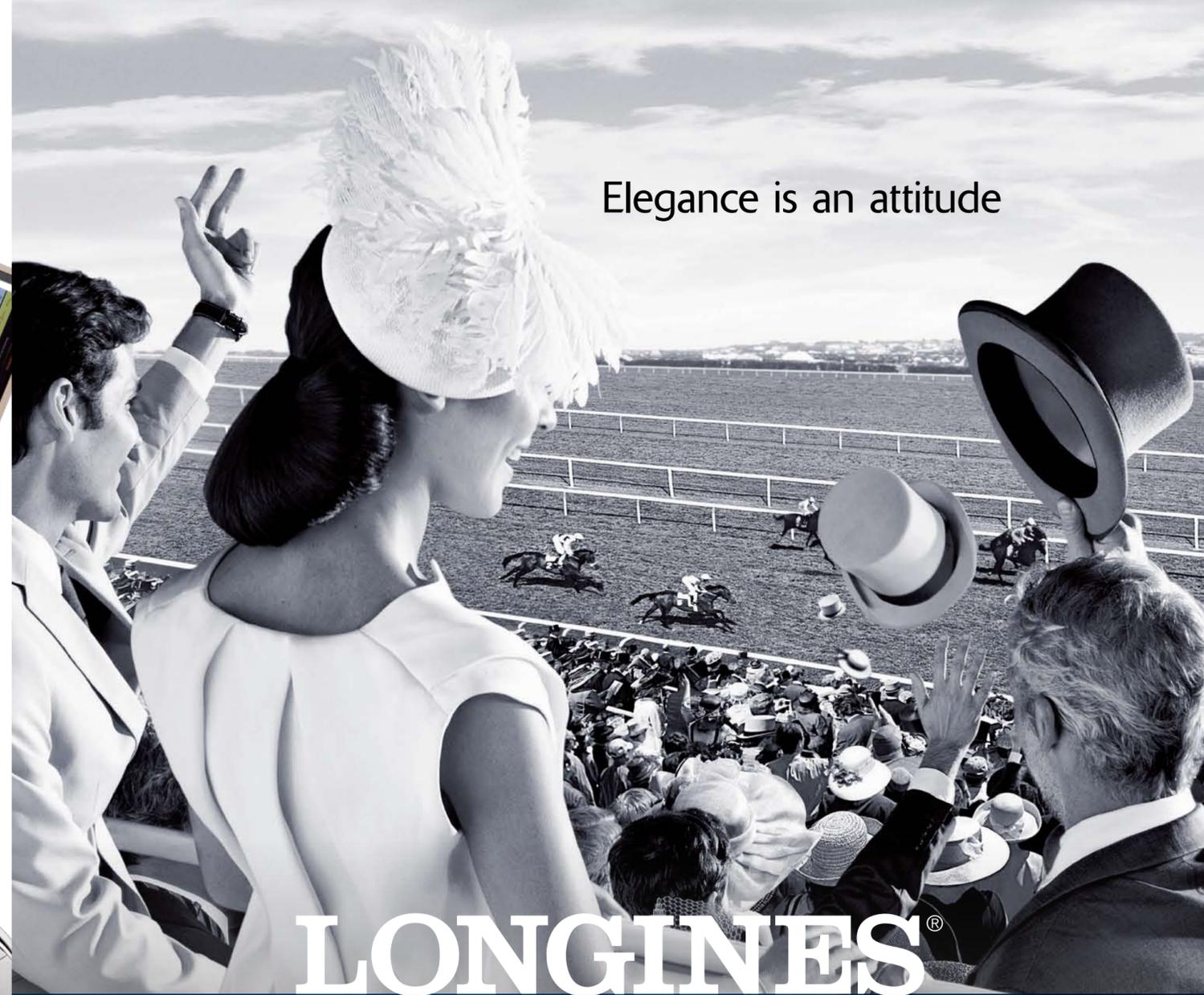
유쾌한 목재와 유연한 가죽으로 인목함과 풍유를 선사하는 리운지 체어와 오토만 7백91만원인 인노버드.

- 두오모 02-516-6164
- 디모빌리 02-512-9162
- 로테나 I&C 02-543-5093
- 방앤울름슨 02-518-1380
- 보스 02-3446-3514
- 에르메스 02-546-3643
- 에이투스 02-3785-0890
- 인노베사 02-3463-7710
- 인노버드 02-515-3660
- 짐블랑 070-8842-0835
- 크리스토폴 02-3479-1828
- 크리에이티브랩 02-516-1743

# for the library Selection

음악과 책을 향유할 줄 아는 이에게 서재는 사유하는 공간, 영감의 원천이다. 정교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기능과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적인 공간을 위한 리빙 아이템. photographed by koo eun mi

Elegance is an attitude



# LONGINES®



론진 부티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02) 6905-3519 • 롯데 영등포점 02) 2164-5194  
신세계 본점 02) 310-1597 • 현대 판교점 031) 5170-2186 •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1123

롯데백화점 대전점 부산본점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충청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 현대백화점 울산점 부산점  
롯데면세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월드타워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신라아이파크면세점 • 갤러리아면세점 63 • 동화면세점 • 두터면세점



Longines DolceVita



# for the kitchen Selection

요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며 소통하는 밥을 아는 사람에게 주방은 또 다른 삶의 무대다. 예술적 가치와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한 고품격 키친 아이템. *photographed by maeng minhwa*

여섯 가지 패턴으로 주스, 청량음료, 하이볼까지 두루 어울리는 에브레데이 그런데 93만원 **바카라**.



클라우스 하퍼-메이의 생동감 넘치는 올빼미 일러스트레이션이 매력적인 타이거 잠시 모양천원대 **이탈라**.



이탈라이 장인이 만든 수공예 제품으로, 고품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는 케이트 스탠드의 카버 8만원 **코자타벨리니**.



달걀 형태의 동그스름한 케이스에 담긴 62종용 실버 카틀러리 세트 2백만원 **크리스토폴**.



'이탈라'는 'HERMÈS'의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다이닝 테이블 3백32만원 **구비** by 이노베사.



브론즈 핸들에 광택이 뛰어난 구리로 만든 20cm 양수 냄비 61만원 **모비엘** by 하농조르다노.



핸드 블로잉 방식으로 제작한 크리스탈 글라스 세트인 나비엔 글라스와 크리스탈 모비엘 보에.



남성 타이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과 칼라를 포용한 장사에 녹여낸 오벌 형태의 플레이트 80만원대 **에르메스**.



클래식하고 모던해 다이닝 চে어로 재가진 699 슈퍼베가라 চে어 가격 미정 **지오포티** by 크리에이티브랩.

장소용 크기가 다를 수 있다



강박적이고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시원스러운 파스텔 블루 컬러로 주방을 돋보이게 하는 블렌더 34만9천원 **스메그**.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열 순환을 도와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는 클래식한 오븐과 5구 화구로 구성된 포베라 1908 1천5백70만원 **리프코뉴** by 하농조르다노.

이탈라 02-3479-1017  
드롱기 080-848-8800  
바카라 02-3448-3778  
보에 02-517-6326  
스메그 1588-2644  
알베시 코리아 02-6299-5684  
에르메스 02-3479-6252  
이노베사 02-3463-7710  
코자타벨리니 070-4694-2113  
크리에이티브랩 02-516-1743  
크리스토폴 02-3479-1828  
하농조르다노 02-515-2626



OBJECTS COME ALIVE



Publicis E-News



# cool & old Britannia

도시의 매력은 뭔가? 인류의 재능을 집약한 '종합예술'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 도시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21세기에 창의 산업의 메카이자 문화 예술의 허브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온 런던은 그 종합예술의 창조성이 가장 돋보이는 도시 중 하나다. 전통과 모던을 둘 다 품고 있고, 균형감을 절묘하게 유지해나가는 '영국적인' 역량과 감각이 집약된 런던의 개성과 매력은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브렉시트 파장' 이후에도 여전히 있다.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양면의 매력을 지닌 '브리타니아(Britannia)' 방식의 창조성을 살펴본다.

“세상은 전통과 함께 갈 때에만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21세기는 '도시의 세기'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세기 초에 세계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도시에 살았던 데 비해 오늘날엔 절반이 넘는 32억5천만 명이 거주한다고 한다. 1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빅뱅'처럼 팽창해버린 것이다. 도시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언젠가부터 '도시 재생', '창조 도시'라는 슬로건이 유행처럼 범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밀집한 삶의 터전을 보다 나은 곳으로 진화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인기'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고 하는 현대의 대도시는 점점 더 비대해지는데, 부동산 시세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구직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그지없으며, 환경과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골칫거리로 오르내린다. 그러나 온갖 부담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꾸역꾸역 도시로 모여든다. 이런 배경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자 문화, 예술, 창의적인 기술에 투자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의 '창조 도시론'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됐다. 후자는 뉴욕, 로마, 베를린 등에서 불어닥친 이런 열풍을 가리켜 '신도시 르네상스'라고도 부른다. 런던이 전통의 메카가 아니라 현대적인 창조 도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 도시 브랜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바로 이 시기다.

##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을 내세운 쿨 브리타니아 프로젝트

“영국인들도 런던에 대해 늘 불평을 쏟아냈죠. 저도 어릴 때는 파리나 바르셀로나 같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를 부러워했어요.” 지난해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헤더워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이라는 전시로 한국에서도 이름을 떨친 영국의 팸블미인 크리에이터 토머스 헤더워는 8년 전인 2009년 런던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런던도 전통 있는 문화 유산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없지는 않지만 뭔가 고답적이고 지루하다는 이미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헤더워의 부연 설명처럼 런던너들은 새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 배경에는 보수당의 18년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게 하면서 1997년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가 있었다. 그는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국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충만한 사회, 그것을 원동력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브리타니아는 고대 로마 시대에 영국 땅을 이르던 말이다). 세익스피어만 팔아서는 안 되니, ‘근사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자는 국가 브랜딩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물론 그의 구호가 실제로 작동한 데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으로 불리는 베이안 인력의 역할이 컸지만, '쿨 브리타니아'가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런던은 반짝반짝 빛났다. 1990년대부터 꽃피기 시작한 21세기 들어서는 더욱 탄력을 받으며 창의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템스 강의 밀레니엄 브리지 같은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꾸린 런던은 다시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당시 배낭족을 비롯한 관광객들도 영국 전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부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던 건 문화적 '당근' 정책 덕분이다. 1990년대 세계 미술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영국 yBa(young British artists), 디자인, 미디어, 음악, 하이테크 건축, 뮤지컬, 스포츠 등 전방위적 문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런던의 지력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폐막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통과 문화유산, 현대의 대중문화를 한데 버무린 작품성을 만천하에 뽐낼 기회였다.

## 올드 브리타니아의 재등장, 두 얼굴의 나라

그렇다. 아직도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전통의 이미지가 무척이나 강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2010년 보수당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 근본적인 장점을 토대로 한 '올드 브리타니아(Old Britannia)'를 내세웠다. 세계 6위 수준의 영국 관광산업을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성(古城), 박물관, 왕실 등 영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브랜딩 전략이었다. 특히 런던 타워, 버킹엄 궁전 등을 보러 중국, 인도 등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마침 2011년 윌리엄 왕자와 결혼하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로 떠오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 덕분에 왕실 마케팅은 실제로 꽤 효과적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전통 있는 나라 영국, '쿨하고 핫한 도시' 런던이라는 양면적인 이미지가 굳이 나뉘 리도 없었고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마케팅 차원에서는 쿨 브리타니아가 승리한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 '창의 산업'이라는 개념이 각광받으면서 쿨 브리타니아는 수없이 회자됐지만, '올드 브리타니아'라는 구호는 딱히 키워드로 두드러진 적이 없으니 말이다. 캐머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보수당 정권을 이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간의 긴축정책 탓인지 딱히 인기 있는 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 최근 들어 영국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브렉시트(Brexit)'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탈퇴(exit)'로 판기를 나자 지구촌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살라' 했던 일이 현

실이 되자 영국인들도 적잖이 당황했다. 쿨 브리타니아에서 올드 브리타니아 기조로 넘어가던 시절에 런던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투표 결과가 발표된 다음 모교에서 '우리는 'international'한 방향을 추구하는 학교이고 그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고립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의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국민투표인 만큼 언젠 그랬다는 듯이 뻔뻔하게 확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브렉시트를 무효화하거나 형태를 축소해 'EU권'이라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관측도 나왔다.

## 브렉시트 파장 이후의 런던, '마이웨이'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나라 영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의도적인 고립을 추구해온 터라 '올 게 온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EU의 울타리에서도 파운드화를 고수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주의를 선택한 이력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건축의 표정>이라는 책을 통해 영국의 도시 풍경을 둘러싼 문화 기행기를 풀어놓은 저자 스톤은 영국인(English)의 직계 조상인 앵글로색슨은 언어에 관해서도 고집스러웠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은 다른 민족과 달리 그들은 로마와 켈트 문화를 수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라틴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고대 영어를 고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영국은 일단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듯하다. 그것도 노르웨이처럼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 시장 접근권은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도 아니고 대륙과의 깔끔한 분리를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택해버렸다(올 초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 관세 동맹과 EU 단일 시장에서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EU와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지는 않을 것이란 견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조나 세세한 조항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더구나 런던은 3백여 개 언어가 공존하는, 그래서 각테일 문화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다인종과 다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아닌가.

“영국 스스로 좀 명정한 짓을 했죠. 하지만 우린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에 살라고 했으니 불안하긴 하죠.” 4년 만에 찾은 런던에서 만난 루마니아 출신의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케팅과 디지털 비즈니스를 공부한다는 '주경야독파인' 그는 변화가 오더라도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조심스레 낙관했다.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느리지만 신중한 혁신을 꾀하는 기질을 갖고 있지 않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탈퇴' 생각이 없다고 웃으면서 덧붙이는 그의 말을 들으니 많은 타향인이 말하는 '일찍이 만 좀처럼 거부하기 힘든' 런던의 매력이 새삼 떠올랐다. 런던은 여전히 런던이었다.

## 양면의 매력을 쥔 채 뻗어가는 창조성

그래도 올드 브리타니아 정권에서 느낄 수 있는 아쉬운 변화가 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처럼 여겨지던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주요 관광 명소나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는 이미 벌어지게 비싸졌다.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약세로 살 떨리는 물가가 좀 내려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인 것이다. 일례로 얼마 전 생향리에 마무리된 빅토리아 & 앨버트(V&A) 뮤지엄의 <핑크 플로이드> 전시는 입장료가 24파운드였다. 주말이라 할증된 가격이지만 유럽 전역을 뒤져봐도 보기 힘든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신관 건축을 통해 뉴테이트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런던의 명물 테이트 모던은 여전히 상설전은 '무료입장' 가능하지만 기획전 표값이 만만치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그런데 <자코메티>전은 같은 테이트의 빼어난 기획전은 눈앞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이처럼 뿌리칠 수 없는 창조적 유혹은 런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홀랜드 파크 옆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겨 청신한 녹음에 둘러싸인 환경이 새로운 디자인 뮤지엄, 확장 프로젝트로 더 근사하게 거듭난 V&A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가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 백미는 역시 전통에 바탕을 둔 혁신을 꾀한 콘텐츠가 아닌가 싶다.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셰익스피어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글로벌 극장에서 요즘은 합창, 록 음악 등으로 버무린 퓨전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식도락 풍경도 한결 풍요로워졌다. “자옥엔 독일 경찰과 영국인 요리사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약명 높았던 런던이지만 그것도 옛날일뿐더러(물론 '미식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식문화의 다양성이 넘쳐나는 게 강점이다. 트렌디한 한국 음식을 파는 '김치차 비비고' 같은 레스토랑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높은 물가는 변함없지만 도시 재생의 상징과도 같은 이스트 런던에 가면 여전히 1~2파운드에 섭렵할 수 있는 베이글을 파는 가게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과 모던을 때로는 파격적으로 비틀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흥미롭게 융합하고 변주하는 능력, 아마도 절충주의에서 창조성을 뿜어내는 역량을 런던만큼 두루 갖춘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도시 컨설팅의 권위자 찰스 랜드리와 말처럼 '공식'이 아니라(not a formula)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과 콘텐츠의 복잡다단한 역학 작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것이다. 영국 패션계의 거목 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원류는 이렇다. “영국의 창조성은 독립성이 유달리 강한 삼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특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대륙'과 달리 영국인은 '홀로서기'에 익숙하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바지런히 바깥세상의 동향에 신경 써야 했고, 그러다 보니 '경계 너머'를 볼 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재호** **스타일**



# Color and soul

옐로 다이아몬드와 핑크빛 루비, 진한 초록색 에메랄드, 청량한 라피스 라줄리, 감귤빛 시트린까지, 소중한고 고귀한 컬러 스톤 주얼리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순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카모미일 꽃을 표현한 루비에 카모미일 컬렉션 네크리스 4천8백만원대 루시에, 옐로 골드를 베이스로 라피스 라줄리, 크로소 프라이즈, 다이아몬드를 자유분방하게 세팅한 가르피에 파리 누벨라 컬렉션 네크리스 4천1백만원대 가르피에, 라운드 컷 루비와 핑크 라운드 사파이어, 블랙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부세론 스페이크 루비 링 7천만원대 부세론, 관능적인 우아함을 담은 부채꼴 모티브의 벨가리 다바스 드림 주얼리, 가운데 세팅한 핑크 사파이어가 여성스럽다. 1천만원대 벨가리, 돛 모티브의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가르피에 자스트 영 클루 네크리스 7백60만원대 가르피에, 블랙 사파이어로 우아한 백조를 기쁨 있게 표현한 부세론 사파이어 스와인 링 2천만원대 부세론, 팬다가 오렌지 컬러의 시트린 스톤을 품고 있는 가르피에 팬더드 가르피에 네크리스 3천4백만원대 가르피에, 10,000분의 1 확률로 발견되는 옐로 다이아몬드를 쿠션 컷으로 세팅한 티파니 옐로 다이아몬드 솔라스트 링 1,517컷 기준 4천만원대 티파니, 공작 새에서 영감을 받은 부세론 해라 피룩 링, 로즈 컷 페어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한 블루 바진, 옐로 라운드 사파이어를 세팅한 옐로 바진 각 3천만원대 부세론, 다이아몬드와 그린 컬러 에메랄드로 병의 강렬함을 표현한 벨가리 세르벤티 네크리스 3천8백만원대 벨가리, 빛을 머금은 옐로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루비에 카모미일 컬렉션 이어링 2천8백만원대 루시에, 티파니의 시그니처가 된 옐로 다이아몬드 팬던트 0.91캐럿 기준 1천만원대 티파니, 1.63캐럿 페어 컷 핑크 사파이어를 메인으로 세팅한 쇼메 조세핀 오브 프랑투아이어 솔라테어 가격 미정, 쿠션 컷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한 쇼메 조세핀 에펠라 플로럴 솔라테어 가격 미정 쇼메, 흑진주 주변에 블랙 스페셜, 투르말린, 가시, 시트린으로 분수를 화려하게 형성화한 파운틴 링 9백20만원대 티파니, 에타리 베이진

타사키 02-3461-5558 가르피에 1566-7277 부세론 070-7500-7282 벨가리 02-2056-0171 티파니 02-547-9488 루시에 02-512-6732 쇼메 02-3442-3159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 extreme Adventure

끝없는 질주와 모험을 꿈꾸는 남성의 욕망을 품은, 워치메이킹 역사를 장식할 익스트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피게 로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이스트림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오메가 피게 로열 오토매틱 컬렉션. 묵직하고 강건해 보이는 필그림으로 이뤄진 옥타곤 케이스는 브랜디의 특별한 기술을 통해 8개의 스크류인으로 고정해 그 어떠한 충격에도 분해되지 않는 강성을 지녔다.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랙 세라믹 베젤, 그리고 블랙 라버 스트랩의 매혹적인 강렬함과 스포티함을 극대화한다. 5천7백원대. 문의 02-3449-5917

**브레게 마린 로얄 5847BR** 기존 우아한 마린 컬렉션에서 한층 커진 45mm의 빅 사이즈 다이얼, 로즈 골드와 블랙 컬러의 강렬한 조화,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스포티한 외관으로 재탄생한 마린 로얄 5847BR. 알람 기능이 있는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인 칼리버 5199를 장착해 스퀘어다이얼을 포함한 다양한 이스트림 레퍼토리를 즐기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5천7백원대. 문의 02-6905-3571

**블랑팡 엘-에블루신 스텐틸 세컨즈 플라멩크 크로노그래프 스피드 스틸** 블랑팡의 가장 다이내믹하고 야성기르다한 일면을 반영해, 혁신적인 무브먼트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엘-에블루신 컬렉션. 레이싱 카에서 영감을 받은 극단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가볍지만 단단한 카본 소재를 선택하고, 엘-에블루신의 핵심인 스텐틸을 강조하기 위해 다채로운 컬러의 매트 칠과 9와 12만 표시한 인덱스, 레드 컬러 포인트를 더했다. 6천5백원대. 문의 02-2118-6474

**몽블랑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UTC 1908**년부터 정밀하고 탁월한 품질의 크로노그래프를 자랑해온 미네르바 앰배서처의 유산과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카 레이싱의 스타일을 집약해 탄생시킨 타임워커 컬렉션. 클래식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세련 파니시 케이스와 레이싱 기증 장갑

에서 영감을 얻은 홀 디테일의 스트랩,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모티브를 얻은 3D 효과의 기운터 등 여러 요소를 통해 모터 스포츠의 세계를 담았다. 6백77원대. 문의 1670-481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크로노미터** 44.25mm 사이즈의 스텐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명성 높은 화이트 에나멜을 채운 타카미터 스케일 버전의 블랙 세라믹 베젤을 갖춘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 크로노미터 타임피스. 레이싱 스타일 미닛 트랙을 비롯해 블랙 컬러의 아틀라게 링을 장착한 2개의 서브 다이얼, 다이얼 컬러와 조화를 이루는 6시 방향 날짜창이 특징이며, 스위스 계측학원(METAS)에서 실시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오메가 코-엑스업 마스터 크로노미터 8900으로 구성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거 르몽트르 마스터 컴포레시 크로노그래프 세라믹**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매트 블랙 컬러 케이스에 골드 핸즈와 크라운을 장착해 스포티하면서도 기품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다이얼 중심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함께 낮과 밤 인디케이터, 세컨드 타임존까지, 모험가를 꿈꾸는 남성을 위한 완벽한 타임피스라 할 수 있다. 2천만원대. 문의 02-6905-3998

**블라지르 디아노스 마그네슘 크로노그래프** 마그네슘 소재의 케이스에 더블 플라지르 로고를 새긴 세라믹 베젤을 장착하고 레드 컬러 다이얼과 라그를 매치해 한눈에 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다이얼 중앙에 시와 분, 초를 계산하는 크로노그래프 창이 위치하며, 4시와 5시 사이에 데이트 창이 자리 잡고 있다.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B1 30으로 작동하며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에디터 베이진, 이자면**



## INTO THE DREAM



**BROADWAY**  
AUTOMATIC SWISS MADE

#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MONO STORE 롯데백화점 광복점 중동점 갤러리백화점 대전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하남점  
 AK플라자 구로분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구점 디류브시티점 목동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김해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점 동래점 분성  
 부산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인천점 청량리점 평촌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LDFLOWER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JEJU SHINSEGAE DFS MAIN  
 INCHEON AIRPORT CENTUMCITY GALLERIA DFS 63 ENTAS DFS DOOTA DFS

(여자) 하니 트렌치코트 가격 미정  
바버리, 스킨 질러 실크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랑방, 크리스탈 이어링  
10만원대 타니 by 마네타니, 살바 스매글  
앵글부츠 1백40만원 쥬세레 자노티,  
(남자) 화이트 러플 셔츠, 블랙 벨벳 턱시도  
재킷,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리,  
블랙 바클 장식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남자) 그레이 체크 더플코트  
가격 미정 발렌타노,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 니트 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여자) 그린 니트 도, 그린 니트  
베스트, 그린 스웨이드 롱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 Close to You

스트리트 룩에서 파티 웨어까지, 조금은 유니크하게, 가끔은 트렌디하게  
대담한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커플 다이어리,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여자) 소매 퍼 디테일의 스카잔 재킷, 펌 모티브 그래픽 나트 돔, 벨트 장식 패턴 스카터, 벨트한 숄더 크로스탈 나비 모티브 링 모두 가격 미정 구매, 진주 드롭 이어링 23만원 타니 by 미네라니, 블랙 & 네이비 컬러 블랙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생핀노, (남자) 그린 컬러 블루중 재킷 39만7000원, 체크 패턴 수트 39만6000원, 스카이 블루 컬러 셔츠 6만1000원, 데이비 카디건 1만1400원, 드래곤 모티브 바지 가격 미정 모두 구매,



(남자)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루이 비롱, 브라운 레더 베레모 50만원대, 옐로 패턴 셔츠, 그레이 재킷, 퍼 벨트, 버건디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여자) 핑크 스웨글 장식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나나리치, 그레이 코트 39만원대 프리다, 실버 드롭 실금 이어링 6만2천원 엠주,





(남자) 레드 컬러 일리타리 재킷 2백80만원, 그레이 울 니트 톱 1백5만원, 블랙 팬츠 86만원 모두 **바버리**.  
(여자) 블랙 니트 티셔츠, 블랙 오프 숄더 롱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실버 크리스털 이어링 가격 미정 **타니 by 미네타니**.



(여자) 체크 코트 가격 미정 **구찌**, 블랙 레이스 디테인의 플리워 패턴 롱 드레스 9백50만원 **자임비티스타 말리**, 화이트 페이퍼트 사이드미 부츠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골드 텀바린 이어링 13만8천원 **아이노**, (남자) 화이트 니트 톱 70만원대, 블랙 & 화이트 도트 패턴 스카프 40만원대, 화이트 벨루즈 재킷 4백만원대,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슈즈 1백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남자) 레드 재킷, 셔츠, 보타이, 니트 톱,  
베이지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여자) 퍼 재킷 3천90만원대,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팬츠 1백67만원대  
모두 **렌디**. 진주 장식 골드 이어링  
9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여자) 오렌지 롱 코트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가모**. 카팅 디테일의 드레스 가격 미정  
**베르사체**. 골드 볼 장식 블랙 새틴 스타일레토  
힐 가격 미정 **프라다**. 볼드한 실카가  
모티브 이어링 3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남자) 레드 재킷 4백40만원대, 니트 톱  
가격 미정,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10만원대  
모두 **살바토레 페라가모**.

헤어 이일중  
메이크업 이영  
모델 케빈, 김아현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아이노 070-8128-3506  
보타이 베네타 02-3438-7601  
프라다 02-3218-5331  
나나리치 02-6905-3627  
엘주 02-3446-3088  
타니 by 미네타니 02-6905-3583  
지암비스타 발리 02-6905-3357  
셀윈노 02-6979-0607  
버버리 080-700-8800  
다들 02-3480-0104  
발렌티노 02-2015-4653  
에르메스 02-542-6622  
베르사체 02-6905-3802  
랑방 02-3438-6186  
쥘세페 자노티 02-543-1937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조르지오 아르마니 080-022-3332  
렌디 02-2056-9022  
발리 02-3467-8835





이 모든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 의상은 극단의 신선함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화려하고 정교한 디테일은 여 전했으며 과격적인 색상과 소재의 사용은 구찌의 한계를 집착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한 참신한 유틸리티는 패션은 즐기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일깨우기도. 쇼가 끝난 후 관객들은 피렌체만의 또 다른 비밀의 정원 세레 토리자이아(Serre Torrigiani)에 초대되어 전 세계 셀러브리티, VIP 고객과 해외의 주요 명사가 참석한 애프터 파티를 즐겼다. 미켈레만의 티치를 더한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하우스 가든과 다채로운 꽃, 식물이 어우러져 구찌의 무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인상 깊은 파티였다. 깊은 밤이 되자 솔로 라이브 가수인 밴드 라이브 피포포르트로 파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소녀시대 수영은 이날 패션쇼에서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2017 F/W 컬렉션 의상을 완벽하게 연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리본 장식의 돌보이는 블랙 시스루 블라우스에 미켈레의 감성이 느껴지는 화려한 플로럴 패턴 롱스커트를 매치해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배우 자레드 레토(Jared Leto), 셀마 헤이엑(Salma Hayek Pinault), 키스틴 던스트(Kirsten Dunst), 다코타 존슨(Dakota Johnson), 그리고 뮤지션 소코(Soko) 등 해외 유명 셀러브리티들도 참석해 저마다 개성 넘치는 2017 F/W 스타일링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구찌, 보볼리 정원에 봄을 불러오다**  
세계 최초로 피렌체 피티 궁전 팔라티나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번 구찌 크루즈 패션쇼는 우피치 미술관과 피렌체 시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 프로젝트 '프리카마베리 디 보볼리(Primavera di Boboli)'의 일환이다. '보볼리 정원의 봄'이라는 뜻의 프리카마베리 디 보볼리 프로젝트는 보볼리 정원을 복원해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우피치 미술관과 협력해 이탈리아 문화부와 피렌체 시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구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년간 우피치 미술관에 2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16세기 말 조성된 보볼리 정원은 조각물, 건축물,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식물이 어우러진 녹지다. 구찌의 회장 겸 CEO 마르코 비자리(Marco Bizzari)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피렌체의 문화 보존과 함께하기에 매우 뜻깊다.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는다. 지난 2015년 뉴욕 예술 지구, 2016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어 피렌체의 중심부에서 선보이는 이번 2018 크루즈 컬렉션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피치 미술관의 디렉터 에이케 슈미트(Eike Schmidt)는 "구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프리카마베리 디 보볼리 프로젝트가 보볼리 정원에 봄을 불러와, 베르사유 궁전과 대적할 이탈리아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장관 다리오 프란체스키니(Dario Franceschini)는 "패션은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패션과 예술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구찌 같은 대표 럭셔리 브랜드가 문화 후원에 힘쓰게 되어 기쁘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피렌체 시장 다리오 나르델라(Dario Nardella)는 "1백 년간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제품력을 자랑해온 피렌체의 대표 브랜드 구찌가 문화 프로젝트의 도시로 피렌체를 선정한 것은 큰 영광"이라 말했다.



# love the Renaissance

이건 과연 꿈일까 현실일까. 최근 몇 시즌째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이끄는 구찌의 2018 크루즈 컬렉션은 다시 한번 보는 이들을 특유의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했다. 보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과 느끼는 것 이상의 초현실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구찌의 특별한 한동안은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것이 분명하다.

**르네상스적 아름다움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구찌의 비밀의 정원**  
2017년 5월의 화려한 봄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구찌의 2018 크루즈 컬렉션이 열렸다. 패션쇼를 진행한 팔라티나 미술관(Palatina Gallery)은 약 5백 개가 넘는 르네상스 시대 작품을 전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피렌체 최고의 갤러리다.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뿌리 깊은 문화를 자랑하는 팔라티나 미술관에서 영감을 받아 7개의 룩으로 이어진 런웨이에서 동식물 모티브, 그리고 르네상스만의 예술적 요소와 디테일을 보여주며 성스러운 공간과 하나 되는 컬렉션을 공개했다. 7개의 룩은 환상적인 데이드림을 느끼게 하는 노란색 카펫을 깔아 곧 펼쳐질 컬렉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백마다 장식된 강렬한 명화, 그리고 미술관 고유의 르네상스적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돋보이는 건축양식은 참신한 이들을 찬란한 매력으로 사로잡았다. 구찌 크루즈 패션쇼를 하기 전에는 아르노 강(Arno River)을 가로지르며 위치한 우피치(Uffizi) 미술관과 피티 궁전(Pitti Palace) 투어가 마련되었는데, 우피치 미술관을 시작으로 새롭게 복원된 르네상스 시대 대표 화가, 보티첼리 룩을 지나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 통로인 바사리 통로(Vasarian Corridor)를 따라 이루어진 프라이빗 투어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바사리 통로는 숨겨진 비밀 공간 같았으며, 통로를 따라 벽에 걸린 수많은 신비로운 작품들, 작고 넓은 창문 너머 보이는 아르노 강과 베키오 다리(Ponte Vecchio) 위 상점과 관광객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마치 동화책을 펼쳐 보는 듯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 통로 끝에는 보볼리 정원(Boboli Gardens)이 위치했으며 길을 따라 피티 궁전 내 팔라티나 미술관으로 안내해주었다. 이어진 2018 크루즈 컬렉션은 그야말로 모든 경계를 넘어, 아니 모든 경계를 허문 상상 이상의 런웨이였다. 꿈과 현실, 남자와 여자, 럭셔리와 빈티지...



1 웅장하고 화려한 피렌체의 팔라티나 미술관에서 열린 구찌의 동화적인 2018 크루즈 패션쇼. 2, 5, 7 화려한 패턴, 소량하게 짙은 쇼츠, 워터만 소품이 기존 남성복에 대한 개념을 하한다. 3, 4, 6 언밸런스한 아이템의 미스 매치, TPO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는 스타일, 과장된 디테일 등 패션의 화려한 변화가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든 크루즈 룩. 8, 9 2018 크루즈 패션쇼에 초대된 키스틴 던스트와 소녀시대 수영. 10 쇼가 시작되기 전 미술관의 7개 방은 노란 카펫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하프 연주를 준비하고 관객들을 기다렸다. 11 가든 모티브의 음악과 손으로 작업한 에펠 채리로 빈티지한 감성을 보여주는 구찌 가든 링. 12 나비 프린트와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25'를 강조한 G 타임리스(G-Timeless) 워치. 13 타이거 헤드 장식이 돋보이는 파이프 소재 슬러 벡. 14 아름다운 조명이 돋보였던 구찌 2018 크루즈 패션쇼의 애프터 파티 현장. 15 유명 뮤지션 베스 디토의 공연.



**Luxury Elegance**

모던한 디자인과 시크한 매력! 로보이는 우광의 매트 파니시가 조화를 이루어 약자기족 특유의 광택감과 디자인이 부딪스르온 이들에게 제각이다. 멋스러운 트랜치코트에도 호근한 올 코트에도 잘 어울릴 블랙 크로코타입 PQ 포트폴리오백, 38X27cm, 2년만대 롬본비 비아 델라 스피가.



**Casual Formal**

(왼쪽부터)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제거하면 포멀한 스타일링도 가능한, 스크린에 강한 소재 소재 하디슨 브리프케이스, 38X28cm, 7년만대 마이클코어스, 가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펠레(pelle)와 발칙기로 직조된 직물을 뜻하는 테스타(Tessuta)를 조절한 펠레 테스타, 씨실과 날실을 교차해 완성되는 보통의 패턴과 달리 폭 2.2mm의 가죽 원사를 방직기로 직조했다. 나미 레더의 특장인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촉감은 최대한 살리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부여한 펠레 테스타 비즈니스 백, 38X27cm, 2년만대 에르메네제쥬 제나.



# Case by case

성공한 남성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브리프케이스, 단순한 서류 가방을 넘어 여자들도 탐낼 만큼 근사한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ity Square**

(왼쪽부터) 내부 공간을 실용적으로 구성해 각종 서류와 노트북, 개인 소지품을 수납하기 용이하며, 진중한 멋을 간직한 모던한 매력으로 시티룩과 비즈니스 룩에 모두 잘 어울리는 빅토리 브리프케이스, 40X29cm, 4년만대 루이 비통,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카우하이드 소재에 비단과 같은 질감을 입힌 도큐먼트 케이스로, 2개의 지퍼를 사용해 여관을 수 있는 메인 수납공간과 자켓으로 이뤄진 오픈 포켓을 갖춰 실용적인 마이스타티스트 도큐먼트 케이스 슬림 백, 38X28cm, 1년만대 몽블랑.



**Modern Classic**

촉감이 부드러운 스키테이 소재에 고급스러운 카우하이드 소재를 더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세세-세세한 디자인으로 수트뿐 아니라 캐주얼 포멀 룩에도 스타일링이한 포인트가 되어줄 브리프케이스, 40X28, 5cm, 4년만대 루이 비통, 에르메네제쥬 제나, 에르메네제쥬 제나.

롬본비 비아 델라 스피가 02-2230-1225  
보타가 베나타 02-3438-7601  
마이클코어스 02-549-2478  
에르메네제쥬 제나 02-3432-1854  
몽블랑 1670-4810  
루이 비통 02-3432-1854



스타일링을 위한 이노베이션, 일러스트



# a spirit of Modernity

더욱 새로운 것, 극도의 모던함을 표현하기 위해 루이 비통이 교토의 깊은 산속 미호 미술관을 찾았다. 2018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마치 순간 이동을 한 듯 두 문화가 어우러진 반전 매력을 담았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이 현장에서 하이패션이 펼치는 강렬한 드라마를 전한다.

**교토, 미호 미술관, 2018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

일본, 교토, 1997년 1. M. 페이가 설계한 미호 박물관. 이제까지 요소에서 무엇을 연출할 수 있을까? 아티스트, 혹은 아주 일반적인 것을 떠올리기 싫었지만, 유니크하게도 이는 2018년 루이 비통의 크루즈 컬렉션이 개최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다.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 제스카에르(Nicolas Ghesquière)는 "나는 몇 년 전 미호 박물관을 방문하고 건축과 자연의 조화라는 1. M. 페이의 철학에 매료되었다. 내게 익숙한 나라인 일본은 내가 20여 년 전 영감을 찾을 때 처음 여행한 장소 중 하나였고, 그 후 줄곧 장기간으로 방문하고 있다. 이 컬렉션은 일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나에게 준 영감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브랜드에서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크루즈 컬렉션의 장소로 미호 미술관을 선택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프랑스식 '살의 예술(art de vivre)'을 모토로 하는 루이 비통 매종의 '순간 이동' 콘셉트를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기 때문이다. 유서 깊은 고도시인 교토에서도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호 미술관은 대자연의 경이와 이에 대한 존경이 조화를 이루는 극적인 장소다.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주변 풍경을 배경으로 이동하다가 미호 미술관 주변에 디디르자 미치 강원도처럼 신세 깊은 자형이 펼쳐졌다. 그리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미래적인 다리와 그래픽적인 원형 입구가 등장했다. 이렇듯 마치 꿈속에서나 본 듯 이채로운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대한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만큼 이색적인 곳을 찾아낸 주인공은 바로 루이 비통과 니콜라 제스카에르. 이러한 반전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미호 박물관만큼이나 적합한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 브랜드가 번 이따금 일본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크루즈 컬렉션을 개최한 것은 극적인 모더니티와 자연환경의 조화를 향한 탐구가 어우러진 미호 미술관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다. 건축가 1. M. 페이는 허탈리아 계곡에 숨겨진 지성-학원으로 알려진 상그렐라를 모티브로 건물을 디자인했다. 일본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도시와 자연의 융합은 루이 비통에 있어 이번 컬렉션을 위한 훌륭한 영감을 했다. 2018 크루즈 컬렉션은 현대 문화와 고대 문명 사이, 미래주의와 고전적 아름다움 사이, 거대하고 활기찬 도시와 섬세한 풍경 사이를 오간다.

**더 강렬한 모더니티를 위한 새로운 발견**

이 극적인 요소를 담은 장소에서 펼쳐진 컬렉션은 익숙한 듯 신선했는데, 일본 시무라이 길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과 디테일이 특징인 의상, 일본의 민화와 수묵 산수화에서 영감을 받은 프린트가 대거 등장했다. 도시적인 매력을 담은 팬츠와 튜트, 자외와 가죽으로 만든 스웨터는 일본 무사의 갑옷을 연상시키며, 이브닝드레스는 노예,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의 금빛 장식에서 차용한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다. 성스럽게 완성한 오비 벨트는 테이퍼드 팬츠의 기본 구조로 사용했고, 핸드백과 클러치는 가부키 가면으로 장식했다. 펠리프 램(Pelle Malle)과 트와이스트(Twist) 백에 대한 관심이 아마모토의 가부키 스티커, 알마(Alma) 가방과 새로운 디자인의 포세트(Pochette)를 강렬하게 변화시킨 가부키 마스크는 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를 단지 일본에 대한 가벼운 오미주와 생경면 오시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문화에 담긴 패션 요소는 니콜라 제스카에르에 의해 새로운 관점으로 변주되고 해석되었다. 더욱더 모던한, 극도의 철학과 강렬한 인상을 유도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또 한 명의 주인공이 활약했는데, 파리에서 패션쇼를 열고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디자이너 아마모토다. 그는 데이비드 보우(David Bowie) 의상의 대부분을 디자인했을 정도로 뛰어난 창의력을 선보여 일본 패션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이번에 루이 비통 백과 액세서리를 위한 패턴과 아이콘, 캐리커를 완성했다. 그리고 니콜라 제스카에르가 루이 비통을 맡은 후 오레오룩 뮤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의 배우 배우나 역시 중요 인물로 등장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쇼의 파날레를 장식했다.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듯 퓨처리즘으로 가득한 무대에 배우들과 수많은 모델이 루이 비통의 2018년 비전을 담아 전진했고, 미호 미술관은 이 순간을 기록한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이 예술적인 순간을 조우하고 싶다면, 루이 비통 홈페이지를 통해 짧게나마 감상해보길 추천한다. 에디터 배미진

1 1997년 건축가 1. M. 페이가 설계한 미호 박물관. 2 파넬레를 장식한 배우 배우나. 니콜라 제스카에르의 무즈이기도 하다. 3, 5 일본 시무라이 길의, 제스카에르 의복 등에서 영감을 받은 크루즈 컬렉션 의상. 4 김사미 아마모토가 2018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을 위해 디자인한 캐리커. 6 크루즈 컬렉션 쇼에 참석한 배우 마벨 할리엄스, 루이 비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 제스카에르, 배우 제나 코르넬리. 7 깊은 숲속에 위치한 미호 미술관에 미래주의적인 무대를 설치해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완성했다. 8, 9 일본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프린트를 가부키 스티커로 재해석한 아이템. 10 청키한 디자인의 새로운 슈즈 컬렉션.



# powermatic 80 Hours

80시간을 쉬지 않고 기록하는 시계. 바로 티소의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한 컬렉션이다.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스위스 메이드를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 티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80시간 영화제를 열고 3인의 앰배서터를 초청했다.



1, 5 80시간 릴레이 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티소 워치 컬렉션의 전시가 이루어진 행사장. 2, 3 열정적인 80시간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 뷰티 디렉터 오민. 4, 8 베스트셀러 워치인 티소 르 로콜과 티소 슈망 데 뚜렐. 6 행사장을 찾은 조보아. 7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티소 트레이디션 오픈 하트.

**품질에 대한 스위스 메이드 워치의 노력, 티소**  
1백64년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 티소(TISSOT). 세계 1백6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 티소 워치는 특별한 재료와 진보된 기능, 세심한 디자인이라는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의 정통 스위스 메이드 워치다. 긴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기계식 워치의 품질에 대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티소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개발했고, 지난 9월 파워매틱 80, 80시간의 멈추지 않는 열정(The Memorable Moments of 80Hours)이라는 타이틀로 영화제를 개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영화제는 8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터널 선샤인> 등 시간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었다. 소중한 사람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80시간 릴레이 영화제로, 영화제 참가비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이번 티소의 영화제가 개최된 CGV 청담 상영관 입구에는 티소의 파워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트레이디션 컬렉션과 티소 슈망 데 뚜렐, 르 로콜 파워매틱 80, 발라드까지 올해 출시한 파워매틱 무브먼트를 품은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이 공간에서 선보인 새로운 시계는 모두 전 세계 무브먼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ETA사와 협력해 완성한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제품으로, 티소의 기존 컬렉션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계가 갖추고 있는 36시간의 지속성을 한층 높여 8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정교한 기술력의 집약체다. 외부 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3일 이상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워치이기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는 티소의 완성도 높은 매력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



**뷰티 디렉터 오민의 80시간, 티소와 함께하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티소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어받은 앰배서터 3명의 영상이 등장했는데, 바로 최근 비보이 하위동과 결혼을 발표한 현대무용가 최수진, 뷰티 디렉터 오민, 그리고 CF 감독 장필의 열정이 담긴 80시간을 편집해 상영한 것. 지난 호에는 현대무용가 최수진의 스토리를 소개했고, 이를 이어받은 이번 호의 주인공은 뷰티 디렉터 오민이다. 현재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뷰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민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 축하 패션쇼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려 2012년 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에서 작품을 전시했고, 매년 서울 컬렉션에서 다수 패션쇼의 헤어스타일 디렉팅을 맡을 정도로 오랜 연륜까지 지녔다. 티소가 포착한 80시간의 영상에는 패션쇼 현장부터 콘셉트 개발, 영상 촬영까지, 열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담았는데, 이를 통해 80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티소와 뷰티 디렉터 오민이 만난 80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은 티소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Tissot.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29-8237 에디터 배미진



sponsored by TISSOT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탄탄하고 넓은 코튼 스트랩을 매려줘 활동성을 자랑하는 반달형의 르 무팅 크로스백, 28X22cm, 3백만원대 **엘보**. 골드 스티치와 양코의 메탈 장식으로 광활한 느낌을 선사하는 스키야크 플랫 1백19만원 **발렌티노 가리베니**. 절제된 여성의 보디라인처럼 매끈한 양코의 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페이퍼트 슬링백, 1백만원대 **디올**. 발칙함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 더욱 실용적인 양코의 나노 시아크의 호라이즌 백, 16X14cm, 1백만원대 **자비스**. 벨벳과 가죽의 조화가 감각적인 미니 트트백, 18X16cm, 2백30만원 **틀 강즈**. 상징적인 모노그램 캔버스와 조호를 0톤 강렬한 기류기 일라스트가 인상적인 포레트 기류기 백, 20.5X16cm, 3백12만원대 **루이비통**.

# Red diary

레드 컬러가 이토록 각광받으며 찬란하게 빛나는 시즌이 또 있었는가. 이번 시즌에 컬러 아이템을 구입한다면 당연히 레드다. 패션계를 물들인 레드 컬러 백 &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국 특색만으로 선보여 더욱 특별한. 레터링 비즈와 플라워 패치 장식의 GG 마동 탑 핸드 코라이인스플루스백, 31X22cm, 4백50만원 **구찌**. 파스텔 블루 컬러의 비즈와 비즈로 화려하게 장식된 골드 홀이 돋보이는 레드 알리 실드 원피스 1백50만원대 **프라다**. 로에베의 베스트셀러이자 시그니처 아이템인 선풍한 레드 컬러의 비르셀모나 백, 24X14.5cm, 3백40만원 **로에베**. 더블 T 로고가 포인트인 문양 패턴의 스카족 로제 1백만원대 **토즈**. 스카와 칼라가 각기 다른 세 가지 시아크의 컬러를 FF 로고의 골드 링 핸들에 연결해 유니티한 디자인을 완성한 트리플렛 클러치, 23X16cm, 1백96만원 **렌디**. 건축적인 골드 힐 디자인이 눈에 띄는 스웨이드 스타일도 기억이 남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디터 권유진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로에베** 02-6905-3470 **토즈** 02-3438-6008 **렌디** 02-2056-9023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엘보** 02-3449-5916 **발렌티노 가리베니** 02-2015-4653 **디올** 02-3480-0104 **자비스** 02-517-7560 **틀 강즈** 02-6905-3640 **루이비통** 02-3432-1854

**Trendy & chic**

(왼쪽부터) 이번 시즌 메가 트렌드인 양말 형태를 접목한 디자인이 유니크한 스카모신 1백1만원 **앤디**, 브랜드의 상징적인 펠트스트라이프 반짝이는 글리터링 소재로 레트로 무드를 완성한 루렉스 GG 패브릭 로 탑 스니커즈 82만원 **구찌**, 인쇄 공학적으로 디자인한 우아한 곡선의 등 받침이 특징인 CH88T 체어 80만원대 **한스 웨그너 by 덴스크**.



**Gentle loafers**

(오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버블 스트랩이 포인트인 부드러운 송이재 가죽 소재의 블랙 로퍼 1백만원대 **에르메스**, 낙엽이 물들 듯 그레이 색상의 바깥면 컬러가 멋스러운 태슬 로퍼 1백20만원대 **프라다**, 신축한 양모 질감의 태슬 디테일에서 개성이 드러나는 로퍼 1백만원대 **버버리**, 로즈 골드 메탈과 벨벳 랩스가 조화를 이룬 세븐 체어 가격 미정 **프리츠 한센 by 보에**.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 스타일링 | 이서영, 김은서 | 세트 스타일링리스트 박주영 | 기구 | 한스 덴스크 | 02-592-6080 | 보에 | 02-517-6326

**Shoe time**

캐시미어 니트와 울 재킷, 여기에 스카프를 무심하게 두른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멋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새로운 슈즈다. 클래식하지만 트렌디한 요소를 더해 어느 룩에나 고급스럽게 어우러질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주력 F/W 남성 뉴 슈즈가 여기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asy luxe sneakers**

(위부터 아래로) 양코의 메탈 링 장식으로 평범한 무드를 연출한 화이트 스니커즈 68만원 **닐버넷**, 레드 컬러의 알팔 트라임으로 멋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스니커즈 92만원대 **토즈**, 상징적인 XXX 로고를 형상화한 탄력 있는 밴드로 포인트를 준 브라운 컬러의 비류나 트라임 스티치 스니커즈 1백10만원대 **에르메스** **제나 구무르**, 모던하게 재해석한 브랜드의 B 로고가 돋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스니커즈 스니커즈 68만원 **발리**, 손으로 직접 묶어 제작한 내추럴한 무드 스니커즈 68원은 CH44 체어 2백만원대 **한스 웨그너 by 덴스크**.



**Classic lace-up**

(왼쪽부터) 밀장 라인에 LV 로고 가죽 패턴을 더한 레이스업 슈즈 1백10만원대 **루이 비통**, 벨트 버클 장식과 매력적인 바깥면 컬러가 돋보이는 레이스업 부츠 1백37만원대 **보테가 벤테타**, 미니멀한 원형 무드 테이블 모두 가격 미정 **덴스크**,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스** 02-542-6622 **프라다** 02-3218-5331 **버버리** 080-700-8800  
**루이 비통** 02-3432-1854 **보테가 벤테타** 02-3438-7601 **닐버넷** 02-6905-3698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제나 구무르** 02-3453-2287  
**발리** 02-3467-8935 **앤디** 02-2056-9023 **구찌** 1577-1921



*sparkling*  
**Moment**

매 시즌,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반짝임으로 크리스탈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는 스와로브스키. 독보적인 크리스탈 관련 노하우를 자랑하는 브랜드답게 스와로브스키에서 선보이는 모든 시계에는 아름다운 크리스탈을 더해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할 스와로브스키의 스위스 메이드 크리스탈 워치 컬렉션을 지금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다**

크리스탈에 대한 최상의 노하우와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을 접목한 스와로브스키의 워치 컬렉션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겸비해 여성들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반짝임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특히 다른 액세서리와 맥스 매치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단연 돋보이는데, 비즈니스 룩에는 물론 이브닝 웨어에도 멋스럽고 웨어러블하게 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스와로브스키 워치의 강점. 대표적으로 스와로브스키의 베스트셀러 워치 중 하나인 크리스탈린 퓨어는 8백50여 개의 크리스탈로 빼곡히 장식한 케이스가 다이얼을 감싼 디자인으로,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벨로우와 이 워치만으로도 훌륭한 포인트 액세서리가 되어줄 것. 간결하면서도 은은한 반짝임을 발하는 미니멀 워치를 찾는다면 스와로브스키의 전문적인 크리스탈 워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옥테이 노바 워치'를 추천한다. 68년의 크리스탈 패시지 돌보이는 시계로, 미니멀하면서도 단아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워치 디자이너 에릭 지로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완성한 특별한 시계도 함께 선보이는 데, 무려 2천 개의 크리스탈을 다이얼 전체에 세팅한 크리스탈린 아이리스 워치가 바로 그것. 크리스탈을 수놓은 듯 빈틈없이 세팅한 다이얼에서 스와로브스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광채의 진가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시계를 넘어 여성에게 반짝이는 기쁨을 줄 패션 액세서리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할 스와로브스키의 워치 컬렉션. 앞으로 #미아스파클링모먼트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스와로브스키와 함께한 반짝이는 일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특별한 순간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1661-9060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워치 디자이너 에릭 지로와 컬래버레이션해 탄생시킨, 2천 개의 블랙 크리스탈을 다이얼 전체에 세팅한 블랙 크리스탈린 아이리스 워치 60만원. 로즈 골드 컬러의 케이스에 크리스탈린 기법으로 약 8백50개의 블랙 크리스탈을 세팅해 글래머러스한 반짝임을 더한 블랙 크리스탈린 퓨어 워치 63만원. 시공간 눈이 내린 듯 2천 개의 크리스탈을 빼곡히 세팅해 궁극의 반짝임을 선사하는 에릭 지로 컬래버레이션 화이트 크리스탈린 아이리스 워치 54만 5천원. 8백50개의 화이트 크리스탈을 세팅한 케이스가 다이얼을 감싼 디자인이 유니크한 벨로우 디자인의 화이트 크리스탈린 퓨어 워치 63만원. 68년으로 이루어진 크리스탈 패시지 각도에 따라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짝임을 발하는 시미어 글라스 소재의 그레이 옥테이 노바 워치 80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 sponsored by SWAROVSKI



# the quintessence of British Luxury



철학자이자 사회 사상이자 리포베츠키는 “럭셔리란 사람의 재능을 통해 사물이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의 재능은 자본과 미학의 절묘한 배합으로 실현할 수 있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사물은 럭셔리리의 꼴을 갖춰가는 것일 터다. 전통의 정서가 유달리 강한 영국에서 럭셔리리는 특히 시간의 가치가 무게 있게 반영되는 존재지만, 현대적인 재해석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뒷받침되고 있다. 전통을 중시하되 엄격하고 신중하게 변화를 꾀하는 영국적인 혁신과 닮았다. 브리티시 럭셔리리의 상징과도 같은 폴로와 위스키가 만나는 흔치 않은 체험의 장을 소개한다.

럭셔리(luxury)는 전통이라는 개념에 많이 의지하는 개념이다. 극도로 섬세한 솜씨를 반영한 정성스러운 손길이 오랜 시간에 걸쳐 깃든 이미지를 내세우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럭셔리의 흥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미지에 기댄 물건과 브랜드가 넘쳐난다. 물론 다 통할 리는 없다. 어떤 전통 브랜드는 그저 고무하게만 다가오는데, 어떤 전통 브랜드는 ‘우아한 진짜배기’로 느껴지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국 문화 예술계 지성인 데얀 수직(Deyan Sudjic)은 “럭셔리가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의지하는 전통이 결코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계속 쇄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 발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말로 의미 있는 전통을 품고 있는가? 그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쇄신을 거듭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폴로(Polo)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로열 살루트(Royal Salute)의 만남은 철저히 확고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재와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브리티시 럭셔리(British Luxury)’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조합의 시너지가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는 무엇보다 매혹적인 ‘체험’일 것이다.

**브리티시 럭셔리리의 정수를 담은 체험의 장, 로열 살루트 코로네이션컵**  
런던의 명소 윈저 성에 부속된 개인 사냥터였다는 윈저 그레이트(Windsor Great) 공원. 엄청난 키를 뽐내는 나무들이 끝을 모를 만큼 길게 일렬로 펼쳐진 모습이 사투 장관인



1 영국 가드 폴로 클럽(Guards Polo Club)에서 열리는 유서 깊은 폴로 대회인 '코로네이션컵(Coronation Cup)'의 현장. 로열 살루트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다. 2 2017년 로열 살루트 코로네이션컵 대회 개막식을 위한 악대 연주. 3, 7 로열 살루트는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한정판 특별 한정 프리미엄 위스키다. 4, 6 지난여름에 열린 코로네이션컵에는 한국인 최초로 배우 한고은이 시상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전통을 토대로 한 신중한 진화를 꾀하는 브리티시 럭셔리리의 정수를 두루 체험했다. 5 로열 살루트의 핵심 물드가 생산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Strathisla) 증류소. 8 폴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폴로 클럽이다.

데, 무려 5,000에이커 면적을 자랑하는 이 넓디넓은 공원의 부지에는 수려한 자태의 폴로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영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폴로 대회인 '코로네이션컵(Coronation Cup)'이 열리는 가드 폴로 클럽(Guards Polo Club)이다. 로열 살루트는 1911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sabeth II)의 조부인 킹 조지 5세(King George V)의 대관식을 기리기 위해 처음 개최됐던 이 대회와 2015년부터 타이틀 스폰서로 인연을 쌓아오고 있다. 로열 살루트가 1953년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한정판 위스키라는 점에서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최소 21년의 포드폴리오를 갖춘 로열 살루트는 브랜드 자체도 대관식 당시 쓰여 올린 '21발의 예포(gun salute)'에서 영감을 받아 작명된 위스키다.

올해 가드 폴로 클럽은 꽃으로 세운 포드폴, 꽃 장식을 단 채 넓은 모자 등 ‘꽃 작품’으로 단장해 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플로리스트 토비 로버츠(Toby Roberts)가 여왕의 웨딩 부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작품이다. 꽃향기만이 전부일 리는 없다. 한쪽에 마련된 로열 살루트 바(bar)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의 결혼 70주년을 기념해 그녀가 좋아하는 얼그레이 티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풍부한 향미의 각테일 ‘로열 서머 컵(Royal Summer Cup)’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로열 살루트의 크리에이티브 고문인 스타 조항 사 바나베 피용(Barnabé Fillion)과 세계적인 바텐더 롭 맥하디(Rob McHardy)의 협업이 빛어낸 현대적인 창조물이다. 루트 비트 샐러드, 트러플을 가미한 무슬린 소스를 곁들인 빨당 요리, 에프터는 티 세트 등으로 구성된 영국식 런치도 이날의 미각 향연에 합류했다. 코로네이션컵 관중은 경기 관람 전에 실제로 폴로라는 스포츠를 경험해볼 수 있는 ‘폴로 클리닉(Polo Clinic)’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잉글랜드가 낳은 폴로 스타로 로열 살루트의 폴로 앰배서더이기도 한 말콤 보윅(Malcolm Borwick)이 직접 잔디밭에서 말렛(mallet, 긴 막대 끝에 붙어 있는 망치 모양의 타구봉)으로 공을 쳐내고, 말 위에서 말렛으로 공을 치는 등의 기초 훈련을 지도해준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장군명군의 모미를 보여준 승부, 역동성과 기품을 동시에**  
2017년 로열 살루트 코로네이션컵은 지난해 1골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한 잉글랜드 팀의 공격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경기였다. 1년을 기다린 승부였던 만큼 초반부터 엄청난 공세를 퍼부은 잉글랜드 팀이 작년에 트로피를 가져간 커먼웰스 팀을 7대 1로 물리친 것. 연두색 잔디밭을 무대로 탄탄한 근육과 유연한 몸놀림을 자랑하는 말을 탄 채 말렛을 휘두르면서 기품 있으면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폴로 선수들의 모습은 혹여 이 스포츠의 규칙을 잘 모르더라도 절로 눈길이 사로잡히는 독특한 매력이었다. 폴로는 축구나 야구처럼 일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하지만 수천 년 역

시를 지닌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다. 그도 그럴 것이 폴로는 영국이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원류를 따지자면 중앙아시아에서 국왕의 직속 기마대를 비롯한 정예부대의 훈련용 경기였다고 한다(실제로는 19세기 영국에서 현대적으로 부활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강인한 체력과 담력이 필요한 만큼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시속 60km로 달리면서 골대도 공을 몰아가는 선수들의 힘차고 날쌔 질주는 승패 여부를 떠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올해는 혈령햄 폴로협회(HPA)의 수장 스티븐 허친슨(Stephen Hutchinson), 로열 살루트 브랜드 앰배서더 등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배우 한고은이 시상자로 나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통성을 간직한 채 은근한 쇄신을 꾀하다**  
시간과 정통성이라는 가치를 공통분모로 지닌 스포츠와 위스키의 시너지를 몸소 보고 느낀 한고은의 체험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로열 살루트의 핵심 물드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 소재의 유서 깊은 스트라스아일라(Strathisla) 증류소를 방문해 위스키 원액을 시음하고 영국적인 감성과 최신 트렌드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는 런던의 유명 바를 체험하는 등의 일정이 포함되면서 브리티시 럭셔리리의 정수를 폭넓게 아우르는 기회를 가진 것.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을 대표하는 13대 아가일 공작(Duke of Argyll)인 토크힐 이언 캠벨(Torquhil Ian Campbell)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스코틀랜드의 로크 파인(Loch Fyne) 기슭에 자리한 인버러레이 성(Inveraray Castle)에서 열린 위스키 디너였다. 이 성은 대중에 개방되는데, 캠벨 공작의 설명에 따르면 “가문이 지닌 오랜 전통의 유산을 개인 소유가 아닌 현재세대와 공通的 문화 가치로 공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며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특별함을 유지하되, 그 틀 안에서 여러모로 진화해나가는 브리티시 럭셔리리의 면모라는 것이다. 런던 홀본에 있는 로즈우드 호텔(Rosewood Hotel London)의 스카프 바(Scarves Bar)도 전통을 바탕으로 한 쇄신이라는 어구가 잘 들어맞는 곳이다. 캐리커처 아티스트인 제럴드 스카프(Gerald Scarfe)의 작품으로 채운 이 세련된 바는 클래식 감성과 모던한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어 런던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트렌드세터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곳에서 꽤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음료인 ‘스타트미업(Start Me up)’은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롤링스톤스 노래인 ‘Start Me up’에서 따온 트렌디 각테일인데, 로열 살루트 21년을 베이스로 견과 맛이 나는 앙귀비 씨, 캄파리, 피치 와인(peach wine) 등을 주재료로 한다. 시간의 가치를 곳곳까지 지키면서도 신중하게 의미 있는 변신을 꾀하는 로열 살루트와 궤를 같이하는 상큼한 변주의 작은 예가 아닐까 싶다. **글 고성민 런던 현지 취재**

# Charm the skin

보통을 보고 손으로 느끼며, 향을 맡고 제품을 바르는 과정 그 자체가 모두 뷰티의 일화이다. 여자에게 화장품이 대표적인 감성 소비재인 이유다. 향과 제형, 효능까지 피부를 위한 가장 고급스럽고도 값진 투자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결함 아베이 로얄 오일 워터피 오일** 오일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개념의 오일미 등 정했다. 베스트셀러인 아베이 로얄 오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일이 더만 용해된 호르는 가벼운 제형이다. 피부에 순식간에 흡수되어 보습한 감각을 남긴다. 엘라스티나과 콜라겐의 함성을 촉진하는 폴리모리 오일 비즈를 사용하여 지친 혼돈이 주는 방식, 기존 아베이 로얄 오일보다 탄력 개선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다. 오일미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산뜻하지만, 페이스 오일 특유의 묵직한 영양감과 보습력은 그대로다. 강력한 보습과 오일 특유의 유효성과 때문에 탄력과 인색까지 개선되는 느낌. 30ml 12만 원, 문의 080-343-9500

**샤넬 르 리프트 리스토레티브 크림** 오일 크림과 오일을 결합한 제품으로 탁월한 보습력과 사용감을 자랑한다. 피부 수분 수준을 30% 올려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 전체의 30%가량이 오일로 이루어진 아주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세로 접합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수분 보유량을 높여주는 3,5-DA 활성 성분과 화백력 콜라겐 성분 함유했다. 특히 피부에 부드럽게 파는 풍성한 제형과 은은한 향이 비오는 순간 힐링 효과까지 더한다. 피부 유수분 필름 복구 효과로 피부결이 촉촉하고 유연해져 인색이 사라지고 즉각적으로 건강한 유평이 된다. 50ml 20만 원, 문의 080-332-2700

**디올 원 에센셜 스킨 부스팅 슈퍼 세럼**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부스팅 에센스도 신경 써야 한다. 보습부터 인색 개선 효과까지 발췌해 피부 컨디션 끌어올려 주고, 이후 사용하는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세안 후 첫 번째로 바르는 제품이며 자연 유래 성분 오일이 담겨 있는 세럼-인-인크 텍스처로 보습력뿐 아니라 수딩 효과도 탁월하다. 비오는 순간 끈적임 없이 손끝에 흡수되며, 피부에 즉각적인 생기를 더해주는 것이 느껴진다. 피부의 활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레드 허비스쿠스 성분과 피부에 수분감, 영양감을 더하는 헤즈류 및 로고지 추출물을 함유했다. 30ml 14만 원, 문의 080-342-9500

**클리안스 더블세럼** 인 세럼 세럼은 있어도 한 통만 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더블세럼. 일명 V라인 세럼으로 볼링 만큼 탁월한 탄력 효과로 인색으로 난 더블세럼이 친했다. 기존의 시들 성분에 강함을 더해 피부 보습 효과를 강화했다.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산뜻한 제형도 장점. 지성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형은 더 가벼워졌지만 피부가 탄탄해지는 효과는 더욱 높았다. 유효성 성분 인과피피드 폴리펩타이드 수용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롤리피펩타이드를 배워 피부 보습을 위한 새로운 구조로, 최적인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었다. 또 스킨 드롭과 라지 드롭 등 선택에 따라 펌핑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30ml 11만 원, 문의 080-542-9052

**시슬리 랑데그라 앵투아주 아이 앤 림 콘투어 크림** 눈가를 위한 최상의 투자. 나이가 들며 따라 발생하는 지연 노화뿐 아니라, 눈을 깜빡이거나 비비는 습관 등 생활 속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행동 노화까지 케어해주는 아이 크림이다. 눈꺼풀에 주름과 탄력을 개선하는 페르시안 아카시아 추출물, 콩 펠티드 추출물과 눈가 붓기 방지 및 다크서클 개선에 효과적인 아틀라스 시드 추출물, 발효 석류 추출물, 페이스프루트 추출물 등을 함유했다. 눈가 보습부터 주름 완화, 진정, 탄력 개선까지 눈가를 위한 종합 케어 제품으로, 눈가뿐 아니라 입가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15ml 22만 원, 문의 080-549-0216

**랑콤 앙솔뤼 엑스트레 크림 리미티드 이드 에디션** 진득한 크림 타입이다.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는 제형, 한 번만 발라도 피부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우아한 장미 향까지, 럭셔리 크림의 심플함을 고루 갖췄다. 최상의 촉만 엄선한 랑콤 장미의 줄기세포와 인과피피드 펩타이드를 함유한 활력과 생기를 전한다. 특히 이번 에디션은 생화학 올트라그라피파도 더된 백화로 유명한 프랑스 스킨 케어 브랜드인 엘릭스마르와 협업해 탄생시킨 것으로, 소진 가치가 높다. 50ml 53만 원, 문의 080-001-9500 **에디터 권유진**



# art of Senses

한 병이 완성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프레스티지 쿠베급만 빛어내는 샴페인의 명가 크루그(Krug). 생산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가치도 높은 이 샴페인 브랜드는 오감의 미학을 살려 음악과 미식을 예술적으로 녹인 '페어링의 장인이기도 하다. 런던, 도쿄, 서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 미학의 세계는, 크루그가문 6대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문가여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음악을 느끼듯 그쳐 자신의 의식과 감각을 따르면 되니까 말이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열망한다.' 음악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이 문구에 대해 영국의 저명한 미술 비평가 허버트 리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오로지 작곡가만이 자신의 의식에 따라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고, 그리고 음악은 누군가의 미감(美感)을 만족시켜 고차하는 의욕만을 담은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못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 이런 맥락에서 음악의 미학은 미학(美學)의 미학과 닮은 구석이 있다. 특히 샴페인과 음악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짝꿍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듯하다. 기포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샴페인은 근본적으로 소리만 들려야 할 수 없는 관계이니 말이다. 이 점을 꿰뚫어보고 음악과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꾀한 샴페인 하우스가 바로 크루그(Krug)다. 전 세계에 걸쳐 '크루가스트(Krugist)'라 불리는 충성도 높은 애호가들을 거느린 이 명품 브랜드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유명 셰프들과 손잡고 한 가지 스키제를 주제로 펄드 페어링(food pairing)으로도 유명하지만, 음악을 활용한 감각적 체험을 선사하는 사도로도 팬들을 더욱 매료시키고 있다.

**도쿄의 밤을 감각적으로 물들인 '오감 만족' 뮤직 페어링**  
지난 9월 말 밤, 도쿄 시나가와 구에 자리잡은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 도쿄(Steinway & Sons Tokyo) 뮤직홀. 이곳에서는 미식과 음악, 그리고 최상의 샴페인이 한데 어우러진 '크루그 언플러그드(Krug Unplugged)'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크게 2부로 나뉜 이 행사 1부에서는 크루그 그랑 쿠베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청중 앞에 한 쌍의 남녀 피아니스트가 등장했다. 둘은 각각 개성이 갖든 독주를 선보이더니 이내 인상적인 합주로 돌아왔다. 마쭈한 2대의 피아노가 교감하면서 빛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심취하면서 샴페인을 훌쩍이니 오감이 절로 행복해졌다. 이날 이 자리를 찾은 크루그 6대손 올리비에 크루그의 표현처럼 '입안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느끼게 하는 샴페인인 만큼 크루그 특유의 다정하고 감렬한 개성이 음악의 기승전절과 함께 놀람도록 풍부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루그 그랑 쿠베는 4백 가지가 넘는 베이스 와인 중 적절한 와인을 택해 날씨의 변화와 상관없이 해마다 최상의 품질과 맛을 선사하는 논비티지 샴페인의 대명사다. 2부는 온통 숲의 감성으로 장식해놓은 디너 행사. 크루그 앙시드 세프인 이마타 다카라가 감자, 달걀에 이어 2017년 올해의 식재료로 선정된 버섯과 크루그를 엮은 정찬 코스를 선보였는데, 앙증맞은 버섯 버거와 화이트 트러플 카르보나라, 블랙 트러플을 활용한 부드러운 초콜릿 디저트 등이 그랑 쿠베, 크루그 로제, 그리고 올해 나온 비티지 샴페인 '크루그 2004'와 짝을 이뤘다. 이 황홀한 만찬을 배경으로 유럽 재즈 거장인 에릭 레니나 트리오의 감미로운 연주까지 펼쳐졌으니, 그야말로 감각의 향연이라 할 만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크루그의 '음악x미식' 사랑**  
미식과 음악을 접목한 크루그만의 감각 있는 시도는 비단 도쿄의 전유물이 아니다. 크루그 매장이 있는 프랑스 랭스는 물론 런던, 홍콩, 서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빼어난 하모니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3년 전 홍콩에서 시작했다. 유명 뮤지션을 초청해 당시 사형했던 샴페인과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하는 페어링 행사를 진행했는데, 청각과 미각의 만남이 기쁘게 매력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를 토대로 크루그는 크루그 홀라이프(krug.com)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음악가들이 직접 크루그 테이스팅 경험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도 하고 있다. 이는 샴페인 병 레이블에 인쇄된 6자리 숫자를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해당 샴페인의 이모저모를 뽐낸 듯한 와인 종류, 셀러 마스터 소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크루그 ID'에 이은 디지털 시대의 혁신이다. 실제로 ID를 입력하면 와인 스토리뿐 아니라 미일스트 테이비스, 베토벤 등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 목록이 뜬다. 지난해를 비롯해 도 음악과 미식을 녹인 '크루그 언 브이아주(Krug en Voyage)' 행사가 열렸는데, 피아니스트 신지호가 라이브 연주를 곁들이면서 '음악미식' 페어링의 진수를 보여줬다. 크루그 그랑 쿠베의 뮤직 페어링 곡으로 마르셀 판 로제리가 선곡한 베토벤 9번 교향곡 중 '현악의 송가'를 자신의 개성을 기미한 편곡으로 연주한 데 이어 본인의 경쾌하기 그지없는 곡인 '사카스로 마무리함으로써 팔색조 같은 크루그의 매력을 표현해낸 것.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은 물론 크루그가 선보이는 미각의 향연을 제대로 만끽해보고 싶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참여하는 '크루그x버섯 프로젝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양정식 셰프(정식당), 장영식 셰프(라미피에), 임기환 셰프(레스스야 뒤 이부)가 창조해낸 '크루그x버섯 메뉴'를 크루그 샴페인과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오는 연말까지. 또 그랑의 레스토랑을 담은 책자 (From Forest to Fork)도 한정 수량으로 증명한다. **에디터 고성연**(도쿄 현지 취재)

**1** 지난 9월 말, 도쿄에서 열린 '크루그 언플러그드(Krug Unplugged)' 행사. **2** 유럽 재즈 거장 에릭 레니나 트리오. **3** 크루그x버섯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서울 청담동 파인 디너 레스토랑 라미피에의 장영식 셰프. **4** 서울 신사동 오디오 소를 오디오 매장에서 열린 '음악미식' 페어링 행사 크루그 언 브이아주(Krug en Voyage). **5** 버섯과 샴페인의 조화가 인상적인 메뉴를 서울의 레스토랑 세 곳(정식당, 라미피에, 레스스야 뒤 이부)에서 연말까지 선보인다.



# just one Drop

호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노화의 징후까지 개선해줄 제품을 찾았다면 이 페이지를 주목하라. 가벼운 세럼 타입이지만, 고가 크림 못지않은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춘 에센스가 출시되고 있다. 열 크림 부럽지 않은 에센스 한 병의 위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키엘 아포테카리 및 올 에센스** 기성품보다 많을듯이 내 몸의 결점을 더 잘 커버하듯이, 에센스 역시 내 피부 고대에 맞춰 제작할 수 있다면 피부 개선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제품은 전문 상담원의 피부 고민 상담을 통해 주름, 모공, 피땀결, 미백, 수분 증가 등 큰 피부 고민 두 가지를 찾아내고, 이에 맞는 앰플을 선택해 만드는 1대1 맞춤 에센스다. 스키프렌들 33% 함유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피부 강화 에센스에 고대에 맞춰 선택한 앰플 두 가지를 사용 전 서는 방식, 각자 피부 고대에 딱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르기 직전에 제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0ml 12만8천원. 문의 02-512-7880

**동인비 자생앰플 에센스** 가을이 되면서 다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공해,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노화에 주목한 제품. 진정과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홍삼 성분이 주성분이다. 피부 활성 보습 성분인 홍삼 잔액, 피부 탄력과 활력을 증진하는 홍삼 사포닌, 그리고 생기와 보습을 부여하는 홍삼 다당체까지, 다양한 홍삼 활성 성분을 담았다. 그런 만큼 다양한 형태의 노화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 또 탄력 에이징 수령 콜라겐스™ 성분이 외부 자극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아주 가벼운 제형으로, 바르는 순간 피부에 시원한 느낌이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60ml 12만 원. 문의 080-710-2304

**시슬리 수프리미아** 극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보고 싶다면 나이트 케어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피부 에너지를 소진하는 낮과 달리, 밤에는 피부가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수프리미아는 낮 동안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부의 자기 회복력을 최적화하는 나이트용 에센스다. 워터-liposome LC 12가 피부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세포의 자연적인 재생 활동을 활성화해 다음 날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보습부터 주름, 탄력, 재생 등 노화의 전반적인 징후를 개선해주는 세럼이지만 크림처럼 부드럽고 풍성한 제형도 가능하다. 50ml 80만원. 문의 060-549-0216

**에스티 로더 라-누트리브 업티메이트 리프트 리제너티브 유스 세럼** 놀랄만큼 가벼운 제형에 먼저 바르고, 즉각적으로 피부 속부터 탄력해지는 느낌이 다시 한번 갈라지게 되는 제품이다. 피부 위에

서 물처럼 퍼지는 아무라 젤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순순하게 흡수된다. 제형은 가볍지만, 단번에 피부를 쫘뼛하게 만들어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개선한다. 플로랄리시어™ 두 성분이 노화되어 재생 속도가 느려진 피부층 간의 재생 시그널을 활성화해 피부 스스로의 개선 활동을 촉진한다. 미세한 캡슐이 농축된 트리메탄트 세럼으로 평평할 때마다 보습 입자와 오일이 풀려나뉘며 부드럽게 퍼질 뿐 아니라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한다. 30ml 39만8천 원. 문의 02-3440-2772

**시슬 수블리미지 렉스트레** 단기간에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고농축 제형이라 한 병을으로도 풍부한 영양분을 느낄 수 있다. 바닐라 폴리나몰리아 꽃과 열매에서 추출한 고농축 폴리나몰리아 PFA 활성 성분이 피부 표피층을 재생시켜 모든 노화의 징후에 대응하고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끈적한 광택 시며 광택의 무거운 재형이지만 피부 위에서 녹아 가볍게 퍼진다. 한 병으로도 얼굴에 고루 퍼 바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유의 윤기 효과 때문에 피부가 한 톤 밝아 보이도록 해준다. 15ml 63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아모레퍼미픽 빈티지 싱글 인스트릭트 에센스** 항산화 효과로 이미 유명한 녹차. 그런데 이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발효 녹차의 항산화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천천히 추출하는 슬로 추출법을 통해 얻은 유효성분을 여타한 첨가물도 없이 그대로 담았다. 녹차 잎의 자연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서만 탄생하는 화귀 케리진 성분을 함유했는데, 이 화귀 케리진이 사용 전 대비 6배가량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 피땀과 탄력을 개선하고 보습의 투약량을 높여 피부 수분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120ml 17만원. 문의 080-02-5757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솜** 성분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 보습뿐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 세안 후 바로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 겸 수분 에센스로,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력, 밀착력을 높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피부 친화력이 뛰어난 인공질 성분의 리포솜 캡슐이 담겨 있는데, 이 캡슐이 피부 위에서 한 겹씩 녹으며 제품의 지속력과 흡수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피부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사용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40ml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글락도브 보네 옹브르 루드르 솔로 211** 페팅 성세한 파우더 타입으로 피부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린다.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될 뿐 아니라 뛰어난 화이트 필을 함유해 시간이 지나도 색이 착색되지 않는다. 그뿐만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좋은 콜 메일 비이지 컬러를 추천한다. 1.8g 6만원. 문의 02-3438-6032

**글랑 카스카 프롬메리 001 페셔트 키스** 로맨틱한 도시 파우더에서 영감을 받은 유혹적인 컬러로 구성된 립 팔레트. 입술과 립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립 프라이머와 세 가지 세이드의 크리미한 립 스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립 연출이 가능하다. 립 스틱을 매트하게 바를 수 있는 폼 브러시와 컨투어링을 위한 듀얼 브러시 등 두 가지 앰블리케이터가 내장되어 있다. 3.5g 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아인드케이 네이티브 웨이브시프터** 컨투어링부터 컬러 코팅, 하이리프트까지 세 가지 기능을 겸비한 만능 베이스 메이크업 팔레트. 어떤 피부 톤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뿐 아니라 블렌딩이 쉬운 파우더 타입과 부드러운 크림 타입 등 제형도 다양하다. 크림 타입을 먼저 바른 다음 파우더로 레이어링하면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다. 파우더 타입 4컬러X3.7g, 크림 타입 5컬러X2.15g 6만5천원. 문의 080-835-0039

**글락도브 보네 루주 아레비르 7 드라곤 레드** 입술에 딱 밀착되는 S자형 단면이라 보다 쉽고 빠르게 립 스틱을 바를 수 있다. 울트라 HD 광학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트랜스루센트 피그먼트 테크놀로지로 다양한 밝기와 컬러를 구현했다. 강렬하고 색사한 레드 컬러인 드라곤 레드 컬러가 특히 눈에 띈다. 4g 6만5천원. 문의 02-3438-6032

**슈에우라 루즈 인피티드 수프림 마트 덴디코랄** 마른 장미 컬러의 인기는 올가을에도 계속된다. 매끄럽게 마무리되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더하는 마른 장미 컬러 립 스틱. 이미 큰 인기를 끈 덴디코랄과 누디로즈 컬러 외에 장미향이 도는 브라운 컬러인 브릭로즈, 말린 로즈, 다크로즈 컬러를 추가로 출시했다. 3.4g 3만6천원. 문의 080-022-3332

**다음 5 컬러 메탈릭스 컬렉션 677 마그네타이즈** 매트함과 빛이 공존하는 가을의 메탈릭스 대비 효과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셰드 팔레트. 매트부터 글리터리, 샤이니까지 다양하게 연출되는 제형으로 구성했다. 잿빛 그레이 톤과 강렬한 차콜 톤 팔레트로 스모키 메이크업뿐 아니라 음영 메이크업 연출까지, 활용도가 높다. 7g 8만4천원. 문의 080-342-9500

**시세이도 인스트로크 아이리어너 콘-아이클루** 딱 한 번의 터치로 초보자도 쉽게 아이리언을 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쉘 아이리어너. 용기에 V자형 홈이 있어 양을 조절하기가 쉽다. 빈티지한 인디고 블루 컬러의 아이리언을 선택하면 신비롭고 고혹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4.5g 3만6천원. 문의 080-546-7700

**시슬 팔레트 에방시엘 170** 배우 영민스 새색 안개와 햇살이 어른거리는 해안, 도시의 불빛이 가득한 밤까지, 세상의 빛과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편안하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컨실러, 하이리프트, 블러셔를 하나에 담아 피부에 우아한 광채를 더해주는 이 팔레트는 윤기를 피부 메이크업을 위한 필수품. 9g 8만4천원. 문의 080-332-2700

**시슬 루주 알루르 인크 158 하이웨이** 눈과 뺨에 은은한 색감을 더한다면 입술에는 강렬한 포인트를 줄 것. 생생한 오렌지 컬러인 루주 알루르 인크 158 하이웨이가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한 번만 발라도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된다. 6ml 4만3천 원. 문의 080-332-2700

**시슬리 후드 릿 트루스트 18호** 글로시한 마무리감과 촉촉함,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립 펜슬. 트렌디한 레드 컬러도 보다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다. 눈가나 뺨에 발라 아이셰드, 블러셔로도 활용 가능해 더욱 실용적이다. 2.5g 4만8천원. 문의 080-549-0216

**메리케이 쉘 세미-샤인 립 스틱 레드 스몰러** 여배우처럼 고혹적인 레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립 스틱. 미끄러지지 부드럽게 발리는 고반색의 쉘 타입 립 스틱으로 스킨이 컬러를 오랫동안 지속시킨다. 3.6g 2만9천원. 문의 02-3446-4058 에디터 권유진



# fall in Love

울긋불긋 다채로운 컬러가 어우러진 하늘과 산. 그 어느 계절보다 깊고 담대한 색을 지닌 가을을 담은 깊고 풍부한 컬러의 F/W 메이크업 신제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editor's Pick

피부도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겨울철 뷰티 케어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라 인텐시브 스킨케어 에센스 비타민 C+** **8월부른산 트리트먼트** 가장 확실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인 비타민 C가 허알부른산을 농축한 애플 제철, 용기의 캔을 누르면 캔에 담긴 순수 비타민 C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형태로 보존되어 최고의 효과를 선사한다. 반가뭇자만 효과는 확실하다. 12ml 6천9천원, 문의 1588-0080 *\_by 에디터 배민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즈 루 힐 마스카라** 햇갑자스러운 연말 모임에 앞서 매혹적인 눈에 연출이 필요한 여성에게 제격 한 번의 터치로도 놀랍도록 풍성한 볼륨감과 롱웨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번짐이나 가루 날림 없이 깨끗하고 또렷한 눈매를 유지할 수 있다. 8.5ml 4만 5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라네즈 X YCH 투톤 메드 립 바 파밍 로즈** 셀라브리티들의 사랑은 물론 10년 2018 서울 패션 위크에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디자이너 윤준호의 패션 브랜드 YCH와 라네즈가 만났다. YCH의 F/W 룩에 사용한 레드톤 무드의 도트 포인트를 그대로 담은 패키지가 단연 매력적. 고딕색 메드 컬러와 벨벳 립 프라이머가 만 2 in 1 립스틱으로, 부드럽고 쉽게 두께를 그라데이션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2g 2만5천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권유진*

**바이레도 로즈 핸드 워시** 자꾸만 손을 씻고 싶은 만큼 은은한 로즈 향기가 매력적인 핸드 워시. 발랄하고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이 아닌, 한 송이 우아한 장미를 연상시키는 시크하고 클래식한 장미 향이려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을 것. 손을 씻은 후에는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져 더욱 만족스럽다. 450ml 6만7천원, 문의 02-3479-1688 *\_by 에디터 권유진*

**에디션 드 퍼플 프라워워 워터 아이리스 핸드크림** 프라워워 워터의 베스트 향수 영패셔너의 조향사가 해산한 아이리스 꽃의 부드럽고 우아한 향을 담은 핸드크림. 향의 지속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라치화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텍스처로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한다. 손등에만 퍼 발라도 온몸에 디디리움을 바른 듯한 은은한 향이 풍겨서 만족스럽다. 75ml 9만9천원, 문의 02-3479-6258 *\_by 에디터 이지연*

**맥 클리데이 컬렉션 스노우 볼 페이스 파우더** 해피에서는 이미 품질 대만을 일으킨 맥의 클리데이 컬렉션 페이스 파우더. 크리스마스부터 요인먼트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력적인 골드 패키지로도 여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 눈꽃 모양을 섬세하게 새긴 골드 컬러 파우더에는 아주 미세한 글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건조하고 색이 번들거리는 대충이다. 국내에서는 11월 3일에 첫선을 보이며 뷰티-아이라면 서투를 것. 10g 4만9천원, 문의 02-3440-2782 *\_by 에디터 권유진*

**달랑 베비비 스킨스 힐리프 오일 마스크** 50년이 넘는 스킨의 전문성으로 탄생시킨 스킨스 힐리프 컬렉션. 비르는 순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진정 효능으로 알려진 칼렌듈라뿐 아니라 베비비, 프렌치 라벤더, 제라늄, 그리고 미조랑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 스킨스레로 지친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일주일에 두세 번 피부 디톡스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50ml 10만9천원, 문의 02-3440-2906 *\_by 에디터 이지연*

**다들 다들스 브로우 스타일러** 생소한 펜슬로 눈썹을 그린 후 뒤쪽을 연결된 브러 시로 눈썹의 볼륨과 형태를 다듬어주는 자연스럽고 완벽한 눈썹 라인을 연출해준다. 모든 눈썹 컬러에 맞출 수 있는 컬러메이크업 세이프 브라운 컬러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눈썹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을 것. 0.10g 3만9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코르미도아젤 벨벳 바디 오일** 향수가 부딪스러운 사람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 끈적이지 않는 편안한 텍스처와 피부를 즉각적으로 보습보습하게 만들어주는 벨벳 텍스처, 파스텔 톤의 컬러까지, 풍유와 여성스러움을 가득 담은 제품이다. 200ml 8만7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배민진*

**랑콤 인슬리프 프레스스 쉐 라바이탈라이징 로즈 로션** 쉐미는 촉촉하고, 로션보다는 끈끈한 독특한 재질의 로션. 장미 꽃잎이 농축된 쉐 타인 액체가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내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꼭 사용해야 할 재질의 매력과 절묘적인 촉촉함을 경험할 수 있다. 부드러운 장미 향기가 매력적이다. 150ml 13만9천원, 문의 080-001-9500 *\_by 에디터 배민진*

**아슬 힐 오 드 퍼플** 이슬에서 두 번째로 출시한 향수로, 수량이 3백cc 넘어야 하하 고귀하게 가득한 일본의 숲에서 영감을 받아 스모키하고 스파이시한 향과 휴 내음, 신선한 숲의 향이 가득 느껴진다. 공기에 사용해도 될 만큼 편안하고 인성적인 향이다. 50ml 14만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배민진*

**에디션 리미티드 캄페르 크리스마스** 러브 스킨케어의 크리스마스 러브를 테마로 한 클리데이 컬렉션. 대담해보는 물론 이브닝 에이코믹까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아이섀도우와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이루어진 팩트, 이 제품 하나만 에이코믹 걱정 끝! 세련도는 물론 블러에도 은은하게 반짝이는 핑클 함유해 글라머러스한 에이코믹을 연출할 수 있다. 3.4g, 플러스 2.5g 9만9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권유진*

**에스티 로더 라바이탈라이징 수프림+파워 아이 비** 수프림 컬렉션의 특징인 풍부한 텍스처의 매력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제품. 다양한 재질의 아이크림을 오래도록 신선보인 에스티 로더 제품인 만큼 크림 타입이 아이 비의 필수 요소인 쏘폰함과 편안함, 부드러운 발림성을 모두 갖추었다. 거기에 주름 개선 기능성 인공을 받은 뛰어난 효과까지 더해졌다. 15ml 9만7천원,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배민진*



## LIFESTYLE



**돌메라냥 P2 2000** 돌메라냥은 두 번째 절정기를 맞이한 P2 2000을 선보인다. 강렬하고 활기 넘치며 상쾌한 심페인으로, 16년간 임금 숙성을 거쳐 두 번째 절정기에 도달해 극대화된 에너지를 보여준다. 활기와 아사이사향, 밀도가 더해져 더 생기 있고 깊이 있는 맛을 선사한다. 문의 02-2188-5100

**캐롤리나 헤라라 굿 걸** 캐롤리나 헤라라는 스와 로브스키와의 컬래버레이션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신제품 향수 '굿 걸'을 공개했다. 활력 넘치며 대담하고 관능적인 여성을 표현한 향기와 이펙티브 블랙 스텔레토 향로 디자인한 보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아하되도 달콤한 향취를 선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3-1805

## BEAUTY

## FASHION



**토즈 셀라 메이나** 토즈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아이코닉 백 '셀라 백'을 출시했다. 케이트 홀스, 올리비아 팔레로 등 셀라백에도 즐겨 찾는 잇 백으로 자리 잡은 '셀라 백'은 곡선 형태와 견고한 스틸리 특징이 더해진 디테일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문의 02-3438-6008

**이젤벨 마랑 에우왈 BRYCE 스니커즈** 이젤벨 마랑 에우왈은 스트리트 감성을 담은 'BRYCE' 스니커즈를 선보였다. 그래픽이 프린트된 로고 디테일과 뒤축의 골드 가죽 패널이 특징으로, 소가죽 100%를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516-3737

**에르메스 펠리 아쉬 컬렉션** 에르메스는 장인의 손길로 재단하고 남은 최고급 가죽을 활용해 만든 특

별한 오브제 컬렉션인 '펠리 아쉬 컬렉션'을 개최한다.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메종 에르메스 도산피코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브랜드의 노하우와 이티스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섹터 오브제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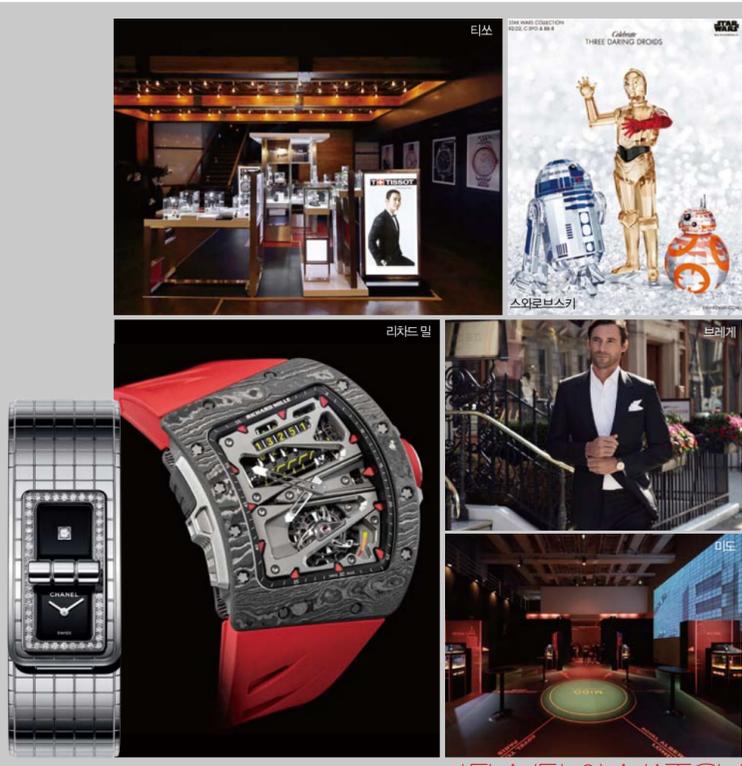
**펜디 캔아이 로고 백** 펜디는 브랜드의 창조 정신을 보여주는 F is FENDI 원형 로고를 더한 '캔아이 로고 백'을 선보였다. 심플한 디자인에 소재와 색, 기법의 독특한 조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아하고 멋스러운 룩을 완성해준다. 문의 02-726-4500

**브룩스 브라더스 페어 아이일 웨이스트코트 베스트** 브룩스 브라더스는 2017 윈터 컬렉션 신상품으로 페어 아이일 웨이스트코트 베스트를 출시했다. 매리노 울로 제작해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특히 전

면은 네이비 솔리드로, 후면은 페어 아이일 디자인으로 제작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062-8822

**클롬보 비아 벨라 스파가 데메테르 토트백** 클롬보 비아 벨라 스파는 럭셔리한 정자형 보다가 특장인 '데메테르 토트백'을 출시한다. 악어족 표면의 멋을 살린 아이템으로 스몰과 미디엄 2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며, 슬더 스트랩을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16-9517

# SHOWROOM



## JEWEL&WATCH

**브레게 클래식 투어** 브레게는 10월 4일, 런던의 마크 클럼에서 진행된 전블랜드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클래식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히 초대해 브랜드의 높은 기술력과 전통의 가치가 담긴 타임피스를 선보였으며, 한국에서는 오는 12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문의 02-6905-3571

**미도 2017 미니 바젤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미도는 최근 논현동 모스 스튜디오에서 '2017 미니 바젤 프레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브랜드의 67차 메인 컬렉션 전시와 함께 각각 샌드박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다양한 컬렉션을 미디어 아트 형식의 영상 퍼포먼스로 선보여 행사에 참석한 많은 게스트들에게 대체로 큰 감명을 선사했다. 문의 02-3479-6230

**스와로브스키 스타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2017** 스와로브스키는 전 세계 스타워치 마니아를 위해 스와 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만든 '스타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2017'을 출시했다. 다가오는 12월, (스타워치: 라스트 제다이) 영화 개봉을 기념해 선보이며 스타워치 최고의 아이콘, 다스베이더를 포함한 인기 시리즈 37작을 한정 출시했다. 문의 1661-9060

**샤넬 코드 코코** 샤넬은 손목 위에서 반짝이며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주얼리 워치, 코드 코코를 공개했다. 특별한 장문장까지 다채로운 장식부품이 장식했으며, 감각적인 볼륨감이 살아 있는 브레이슬릿과 다이아몬드 디테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멋을 더했다. 문의 02-3708-4010

**해밀턴 해밀턴 벤츄라 클래식 S & L** 해밀턴은 벤츄라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모델을 재해석한 해밀턴 벤츄라 클래식 S & L을 공개했다. 클래식 타임피스를 재현하기 위해 유행을 타지 않는 데님 소재를 스트랩에 적용했으며,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핀 메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장착한 다이얼에 모던한 감각을 불어넣는다. 문의 02-3467-8361

**래즈랭던 이번 행사는** 파워워치 80으로 매력 무브먼트를 장착한 제품의 전시와 80시 길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인기 영화 상영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의 02-6370-4068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mm 오르비스** 오메가는 최근 세계 시계의 날을 기념해 오르비스 인터넷을 후원하는 '스피드마스터 38mm 오르비스'를 공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함께 블루 알루미늄 링을 장식한 타카미타 스텔 베젤과 오르비스 테더베어 광경주로 중량을 장식한 블루 세라믹 핸즈가 특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모델 스티 크로퍼드의 뒤를 이어 새롭게 오메가의 앰배서더로 합류한 프레스리 가가도 함께했다. 문의 02-511-5797

**리처드 밀 RM70-01 두리비움** 리처드 밀은 포물러 워치 챔피언 알렉 프루스트와 시를링에서 영감을 받은 'RM70-01 두리비움'을 30개 한정 출시한다. 광택한 곡선의 독특한 라인인 최고의 착용감을 선사하며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최초로 도입한 주황 기공 장치 특징이다. 문의 02-512-1311

**해밀턴** 해밀턴은 벤츄라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모델을 재해석한 해밀턴 벤츄라 클래식 S & L을 공개했다. 클래식 타임피스를 재현하기 위해 유행을 타지 않는 데님 소재를 스트랩에 적용했으며,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핀 메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장착한 다이얼에 모던한 감각을 불어넣는다. 문의 02-3467-8361